

1인 가구 정책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사업

- 분석 결과 보고서 요약본 -

| | |
|------|-------------------------|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
| 기간 | 2022.6.20. - 2023.1.19. |

1. 국내·외 사례 조사

1.1. 개요

1.1.1. 사례 분석 개요

1) 분석 목적

국내·외 정부, 지자체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해 주거/안전/질병/빈곤/외로움 등의 다양한 문제 분야에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음.

특히 금번 ‘인천광역시 1인 가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사업’과 관련하여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안전/건강/사회적 관계망/여가 분야의 다양한 국내·외 우수 사례를 법·제도적 분석 측면’과 ‘지원정책 및 빅데이터 분석 사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함. 이를 통해 유의미한 인사이트 및 시사점을 발굴하고, 현재 인천광역시 1인 가구 지원 현황과 비교하여 맞춤형 지원정책과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개선안 기획에 활용하고자 함.

1.2. 국내 사례 조사

1.2.1. 국내 1인 가구 지원 정책 사례

표 1. 국내 1인 가구 지원 정책 사례

| 사업명 | 사업내용 | 기대효과/평가 |
|-------------------------------|---|--|
| 법무부 “1인 가구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 -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기존 ‘지원’ 중심 제도에서 가구 특성을 고려한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 | -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유대·상속·친족·주거·보호중심의 1인 가구 법안 발굴 |
| 서울특별시 “1인 가구 특별대책” | -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융합·공감 3대 원칙 아래 ‘4대 분야(건강·범죄·고립·주거) 안심정책’을 추진하여 ‘1인 가구 안심특별시’를 조성 | - 1인 가구 분야별 불안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1인 가구가 사회구성원으로서 공존하며 살아가는 정책기반 마련 |
| 서울특별시 강서구 “AI 생활관리서비스” | - 인공지능(AI)가 주기적으로(주 2회) 전화를 걸어 식사, 수면 여부 등 안부를 챙기고 운동, 독서 등 취미생활이나 외부 활동 같은 일상생활 관리 - 대화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징후 발견 시, 담당 공무원들이 대상자의 상태를 즉각 확인하고 유관기관 및 분야별 공공 서비스 연계 지원 | - 기존 정형화된 질문을 통한 형식적 대화가 아닌 상호작용이 가능하여 단순 건강체크를 넘어 정서적인 케어까지 가능 |

| 사업명 | 사업내용 | 기대효과/평가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 - 케어 대상자의 전력 사용 데이터와 통화 기록을 활용하여 평상시 생활 패턴과 다른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복지 담당 직원에게 알림이 전달되는 인공지능(AI) 서비스 | - 대상자 생활 패턴을 기반으로 신변 이상 예측하여 신속한 조치 가능 |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빅데이터 기반 1인 가구 안부살피미 지원사업” | - 1인 가구의 전력, 통신 사용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평소와 다른 생활패턴이 발견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문제가 감지된 가구의 안부를 직접 확인 및 조치하는 복지서비스 제공 | - 대상자 생활 패턴을 기반으로 신변 이상 예측하여 신속한 조치 가능 |
| 경기도 “1인 가구 및 범죄취약가구 자가 내 범죄예방 및 대응시스템 구축” | - 1인 가구 및 범죄취약가구를 위한 가구 내 비상벨 설치 및 긴급대응지원 실증 단계 이후, 비콘 비상벨 및 스마트폰 앱 설치 지원 | - 1인 가구 및 범죄취약가구를 위한 범죄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
| 경기도 “1인 가구 공동체 공동부역 지원” | - ‘혼밥’ 개선 및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위한 1인 가구 공동체 지원 - 지역 내 조리시설 등과 연계한 공유부역, 요리교실, 식사프로그램 지원 - 식사 및 공동체 여가문화 등 연계 추진 | - 1인 가구 사회적 관계형성 및 식생활 개선 - 1인 가구 사회적 단절 완화, 정서적 유대감 구축 지원 및 지역 내 공동체 참여기회 확대 |
| 경기도 “청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연차별 확대 보급” | - 도시근로자가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대학생, 청년 등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확대 공급 | - 청년 1인 가구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 도모 |
| 충청남도 천안시 “저소득 1인 가구 급식지원사업” | - 저소득 1인 가구에 주 2회 밀키트 배송을 통하여 미수령 시 위기 상황으로 인지하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 고독사를 예방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 재신청 희망자가 95%에 달하며, 급식 지원을 통한 영양 보충 및 안부 확인을 통하여 고독사 예방에 기여 |
| 충청북도 청주시 “부영이 앱” | - 1인 가구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된 만 50~64세 중장년층 1인 가구 안전 파악 - 일정 시간(12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호자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업무용 휴대전화에 위험 신호 자동 전송 | -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건강 문제 발견 시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1.2.2. 국내 1인 가구 관련 법제도적 분석

1) 법무부, “1인 가구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2021)

- 주요 내용

5대 중점 과제 중 ‘친족’ 분야는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민법 상 가족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을 검토하고, ‘상속’ 분야는 상속권 상실제도(일명, 구하라법), 증여 해체의 범위 확대(일명, 불효자방지법), 유류분 축소 등 피상속인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논의하고, ‘주거’ 분야에서는 주거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차권 양도·전대 요건 완화 방안 및 1인 가구도 집합건물의 관리·변경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관리단집회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함. ‘보호’ 분야에서는 임의후견 제도 홍보 및 임의후견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등을 통하여 1인 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임의후견 제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며 ‘유대’ 분야에서는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하는 비물건화를 통한 반려동물 압류금지 등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논의함.

2) 1인 가구 조례 제정 현황

- 인천광역시 외 12개 광역단체 및 특별자치단체가 1인 가구 관련 조례 제정

인천광역시는 최근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복지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인천광역시 4개 자치구(남동구, 부평구, 동구, 연수구)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를 별도로 제정함.

표 2. 광역자치단체 1인 가구 조례 제정 현황

| 지자체 | 조례명 | 공표일자 | 제정·개정 |
|-----------|---|------------|-------|
| 인천광역시 | -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 | 2022.02.24 | 제정 |
| 인천광역시 남동구 | -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 2021.12.23 | 일부 개정 |
| 인천광역시 부평구 |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 2019.04.22 | 제정 |
| 인천광역시 동구 | - 인천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2020.05.22 | 일부 개정 |

| 지자체 | 조례명 | 공표일자 | 제정·개정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19.09.18 | 제정 |
| 서울시 |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 2016.03.24 | 제정 |
| 부산광역시 | -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2020.09.30 | 일부 개정 |
| 대구광역시 | - 대구광역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 2018.10.01 | 제정 |
| 광주광역시 | - 광주광역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 2019.10.15 | 제정 |
| 대전광역시 | - 대전광역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 2019.08.09 | 제정 |
| 세종시 | -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2021.09.24 | 일부 제정 |
| 울산광역시 | -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 2019.03.07 | 제정 |
| 경기도 | - 경기도 1인 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20.07.15 | 제정 |
| 충청남도 | -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2019.05.30 | 제정 |
| 전라남도 | - 전라남도 1인 가구 지원 조례 | 2020.05.21 | 제정 |
| 경상남도 | - 경상남도 1인 가구 지원 조례 | 2019.12.26 | 제정 |
| 제주도 | -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2021.08.09 | 제정 |
| | -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 2020.04.13 | 전부 개정 |

1.2.3. 국내 1인 가구 자원 정책 및 빅데이터 분석 사례

1) 서울특별시, “서울시 1인 가구 특별대책” (2021)

2021년 5월 서울특별시는 ‘혼자여도 OK, 함께니까 OK’라는 비전하에 130만 서울시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인 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신설하고 연령·성·지역별 다양한 특성의 1인 가구 수요에 맞는 생활밀착형 안심 종합정책을 발굴 및 추진함.

1인 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은 단기적으로 1인 가구의 불편 및 불안을 해소하고 1인 가구 사각지대 사업 발굴 및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목표로 함. 추진단은 2021년 1인 가구 정책 전담 추진체계 구축 및 선도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했으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목표 달성을 위하여 건강·범죄·고립·주거 4개 분야에 대한 생활밀착형 안심 종합계획을 발표함.

| | | |
|------------------|--|------------------|
| 건강 안심 | 1 맞춤 건강돌봄 제공 -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확대 - 1인가구 건강관리프로그램 | 고립 안심 |
| | 2 먹거리 안심프로그램 운영 - 1인가구 행복한밥상 - 1인가구 착한먹거리 지원 | |
| 범죄 안심 | 3 밤길 안전 보호 -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 스마트보안등 및 고화질 CCTV | 주거 안심 |
| | 4 1인가구 내집안전 강화 - 안전도어 지킴이 - 1인가구 안심홈세트 | |
| | 5 고독·고립 탈출 지원 - AI 활용 1인가구 생활관리서비스 - 1인가구 상담 멘토링 사업 확대 | |
| | 6 자립환경 조성 - 관계형성 프로그램 지원 및 소통공간 - 1인가구상담헬퍼 운영 및 경제자립 지원 | |
| | 7 1인가구 맞춤주택 공급 확대 - 세대통합형 모델 개발·공급 - 청년 1인가구 주택공급 | |
| | 8 내집찾기, 내집관리 불편해소 -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 |

<그림 1. 서울특별시 1인 가구 4대 안심 종합계획 (‘22~’26)>

(출처: 2022년 1인 가구 특별대책추진단 주요업무계획)

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빅데이터 기반 1인 가구 안부살피미 지원사업’ (2021)
 서귀포시는 한국전력 SK텔레콤의 전력사용량, 스마트폰 통화 및 위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1인 가구와 안부 이상징후를 파악한 뒤 지자체 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2021년 4월 제주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1위로 선정됨.

본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중장년층 1인 가구 및 홀몸 어르신 가구의 전력 사용량이 평소와 다르게 급감하고 휴대전화 통화량과 문자 발신 횟수가 전혀 없으면 신변에 이상이 있다고 예측할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함.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독사 위험집단 데이터 분석 기반 예방 및 발굴 지원 방안 연구 (2019)
 2017년 1인 가구는 562만 가구(28.6%)로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40~60대 중장년층에 해당하는 남성 1인 취약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1인 가구 가운데 1인 취약가구는 인적 관계망이 단절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발생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심층 사례연구 및 고독사 관련 다양한 위험요인 및 정보를 분석하여 위험집단을 도출하고 이들에 대한 분포 및 특성을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 및 발굴 등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1인 취약가구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고독사 예방 지원 방안 연구를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발굴 및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고독사 위험집단 특성 및 잠재적 요인과 사회보장 수혜이력 연계 분석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고독사 위험집단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하여 고독사 예방 및 발굴 지원 방안을 마련함.

1.3. 국외 사례 조사

1.3.1. 국외 1인 가구 지원 정책 사례 개요

우리나라에 앞서 1인 가구 증가현상을 경험한 국가들의 대응사례를 보면,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경우 1인 가구 증가가 상대적으로 점진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고, 이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포괄 대상 범위가 크고 급여 수준 또한 높기 때문에 특별히 1인 가구에 특화된 제도적 지원 없이도 정책사각지대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주로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중심으로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인 취약가구 위험분석 및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연구”, 2017). 한편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1인 가구 급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공적연금, 생활보호, 고령자 맞춤 주택공급 제도 등 고령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이 수립 및 시행됨.

표 3. 국외 1인 가구 지원 정책 사례

| 사업명 | 사업내용 |
|--|--|
|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 시스템 | - 1인 가구 취약계층(고령자) 종합상담 지원 시스템 - 성년후견제도, 학대 방지, 경증, 고위험군 예방, 케어 매니저 지원 |
| 미국, You Are Not Alone(YANA) | -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노인, 장애인 등이 스스로 독립심을 가지며 살 수 있도록 신청자에게 무료 제공 - 자원봉사자들이 대상자에게 정기적으로 전화 및 방문하여 안전·영양·건강·재정 상태 파악 |
| 미국, Supporte Housing for Families and Young Adults (SHFYA) | -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24세 이하 저소득 학생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임대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 사업명 | 사업내용 |
|---|---|
| 미국, 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e the Elderly (PAC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 커뮤니티 기반 노인 통합 개인 맞춤형 진료서비스 - 만성질환을 2개 이상 보유하면서 중증질환이 없는 5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성인 주간 건강보호를 제공 |
| 프랑스, APL: 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및 자산이 일정 규모 이하인 청년 1인 가구에 주택수당 제공 - 국적과 무관하게 청년이 정부와 협약을 맺은 임대아파트, 학교 기숙사 및 민간 기숙사에 입주하게 될 경우 지원 |
| 프랑스, MONALISA : MObilisation NAtionale contre L'ISolement Social des Agé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부터 시민 사회와 공공 기관 간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노인의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2019년 기준 500개 이상의 단체들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 - 독거노인을 정기방문하거나 사회관계를 증진하도록 각종 활동 및 모임을 통한 사회관계를 증진하도록 돕는 프로그램 |
| 독일, Wohngeld (집세보조금 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주거비용을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 제공 - 과거에는 가구원수에 따라 임대료를 지원하였으나,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추가 대상에 포함됨 |
| Modeling elderly behavioral patterns in single-person households (20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외선 센서에서 발생된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평소 행동과 다른 생활 패턴을 보일 경우, 위험 식별로 판단하고 경보가 발령됨 |

2. 1인 가구 현황 및 특성 분석 결과

2.1. 분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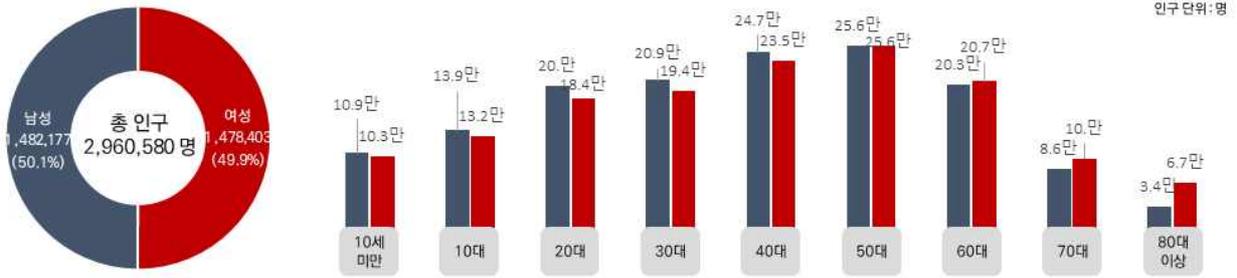
전국 1인 가구는 최근 5년간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0년 기준 인천광역시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 중 28%를 차지하고 있어 1인 가구 지원 정책 및 전담조직 구축 필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임.



본 분석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지역별/성별/연령별 주민등록 1인 세대수, 인천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1인 가구 수의 변화, 다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경제·여가활동 여부 및 세부 특성을 파악하여 인천광역시 1인 가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경제·여가 특성을 도출하고자 함.

1) 인천광역시 인구 현황

2022년 7월 기준 인천광역시 인구는 296만명으로, 남성 인구와 여성 인구의 차이는 3,774명으로 성비의 차이가 적으나, 용진군의 남녀 성비는 타 군·구와 달리 1.32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성별 10세 단위 인구는 남·여성 모두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중장년층의 비율이 청년·노년층보다 높음.



<그림 2. 2022년 7월 기준 인천광역시 성·연령대별 인구 수>

표 4. 2022년 7월 인천광역시 군·구별 성별 인구수 (단위: 명)

| 행정구역 | 남성 | 여성 | 합계 | 성비 |
|-------|-----------|-----------|-----------|------|
| 인천광역시 | 1,482,177 | 1,478,403 | 2,960,580 | 1.00 |
| 강화군 | 35,021 | 35,043 | 70,064 | 1.00 |
| 옹진군 | 11,710 | 8,886 | 20,596 | 1.32 |
| 중구 | 77,212 | 71,414 | 148,626 | 1.08 |
| 동구 | 29,646 | 29,173 | 58,819 | 1.02 |
| 미추홀구 | 204,857 | 202,035 | 406,892 | 1.01 |
| 연수구 | 192,010 | 194,730 | 386,740 | 0.99 |
| 남동구 | 254,161 | 257,548 | 511,709 | 0.99 |
| 부평구 | 241,434 | 247,940 | 489,374 | 0.97 |
| 계양구 | 145,702 | 146,735 | 292,437 | 0.99 |
| 서구 | 290,424 | 284,899 | 575,323 | 1.02 |

표 5. 2022년 7월 인천광역시 군·구별 생애주기별 인구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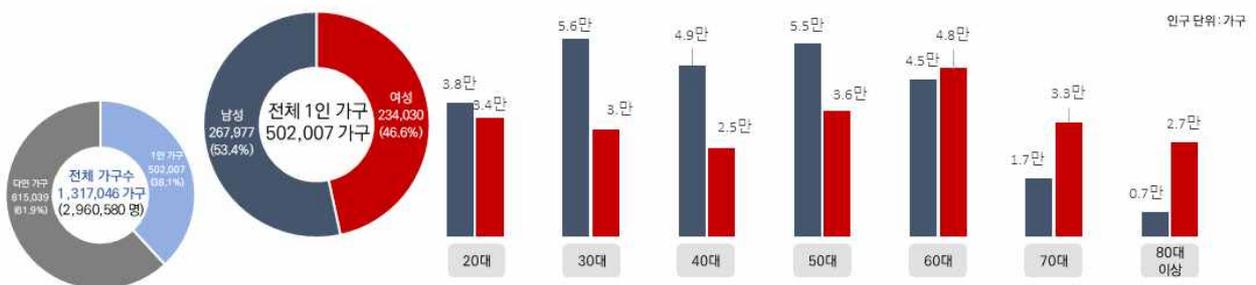
| 행정구역 | 청년층 | 중장년층 | 노년층 |
|-------|-------|-------|-------|
| 인천광역시 | 31.7% | 50.0% | 18.2% |
| 강화군 | 16.3% | 44.6% | 39.1% |
| 옹진군 | 23.8% | 44.3% | 31.9% |
| 중구 | 34.0% | 47.6% | 18.4% |
| 동구 | 24.2% | 47.5% | 28.3% |
| 미추홀구 | 31.6% | 47.1% | 21.2% |
| 연수구 | 33.6% | 52.5% | 13.9% |
| 남동구 | 31.1% | 50.7% | 18.2% |
| 부평구 | 32.0% | 49.0% | 19.0% |
| 계양구 | 31.3% | 51.8% | 16.9% |
| 서구 | 33.9% | 51.8% | 14.3% |

2.2. 1인 가구 현황 및 추이 분석

2.2.1. 1인 가구 현황 분석

1) 인천광역시 1인 가구 현황

22년 7월 기준 인천광역시 1인 가구는 약 502,007 가구로 전체 가구 1,317,046 가구 중 38.1%를 차지하며, 남성과 여성 1인 가구의 차이는 33,947가구로 남성의 비중이 더 높으나, 강화군이 남녀 성비는 타 군·구와 달리 0.99로 여성이 남성보다 98가구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성별 10세 단위 1인 가구는 남성은 50대, 여성은 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중장년층의 비율이 청년·노년층보다 높음.



<그림 3. 인천광역시 가구 유형별 가구 수 및 성별 1인 가구 수>

표 6. 2022년 7월 인천광역시 군·구별 성별 인구수 1인 가구 (단위: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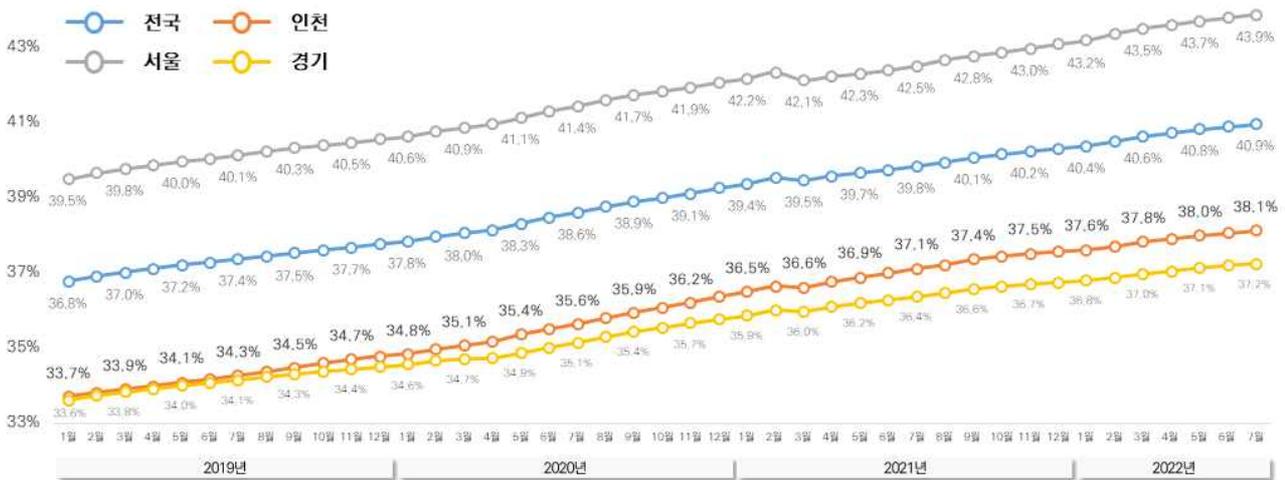
| 행정구역 | 남성 | 여성 | 합계 | 남녀 성비 |
|-------|---------|---------|---------|-------|
| 인천광역시 | 267,977 | 234,030 | 502,007 | 1.15 |
| 강화군 | 7,683 | 7,781 | 15,464 | 0.99 |
| 옹진군 | 4,988 | 2,551 | 7,539 | 1.96 |
| 중구 | 21,163 | 15,186 | 36,349 | 1.39 |
| 동구 | 5,732 | 5,403 | 11,135 | 1.06 |
| 미추홀구 | 45,932 | 39,311 | 85,243 | 1.17 |
| 연수구 | 26,027 | 23,534 | 49,561 | 1.11 |
| 남동구 | 45,066 | 42,065 | 87,131 | 1.07 |
| 부평구 | 40,531 | 39,636 | 80,167 | 1.02 |
| 계양구 | 23,929 | 21,941 | 45,870 | 1.09 |
| 서구 | 46,926 | 36,622 | 83,548 | 1.28 |

표 7. 2022년 7월 인천광역시 군·구별 생애주기별 인구 비율 (단위: %)

| 행정구역 | 청년층 | 중장년층 | 노년층 |
|-------|-------|-------|-------|
| 인천광역시 | 31.8% | 43.6% | 24.6% |
| 강화군 | 11.8% | 42.6% | 45.5% |
| 옹진군 | 29.3% | 42.2% | 28.5% |
| 중구 | 40.8% | 39.0% | 20.2% |
| 동구 | 16.4% | 43.4% | 40.1% |
| 미추홀구 | 32.8% | 42.0% | 25.2% |
| 연수구 | 39.9% | 40.5% | 19.6% |
| 남동구 | 31.1% | 44.1% | 24.7% |
| 부평구 | 29.8% | 43.6% | 26.6% |
| 계양구 | 26.0% | 48.7% | 25.4% |
| 서구 | 33.8% | 46.0% | 20.1% |

2.2.2. 1인 가구 전출입 현황 분석

전국 1인 가구 비율은 2021년 3월 이전까지 매월 지속 상승(0.1~0.2%)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3월에는 전국 및 수도권 모두 감소(0.1%)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후, 2022년 7월 현재까지 전국 및 수도권 1인 가구의 비율은 매월 지속 상승하는 추세로 변화함.



<그림 4. 2019년 1월 ~ 2022년 7월 1인 가구 비중 변화>

2021년 2월 인천광역시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한 1인 가구는 7,761가구로 나타남. 이 중 2,784가구(36.3%)는 경기도, 2,192가구(28.6%)는 서울특별시, 2,685가구(35.1%)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반면, 타 지역으로부터 전입한 1인 가구는 8,524가구로 나타났음. 이 중 3,572가구(41.9%)는 경기도, 2,308가구(27.1%)는 서울특별시, 2,644가구(31.0%)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부터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따라서, 2021년 2월 인천광역시 전입 1인 가구는 전출 1인 가구보다 많으며, 인구 이동 요인으로 인한 1인 가구 감소는 적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 5. 2021년 2월 인천광역시 타 시·도 전출 1인 가구 수>



<그림 6. 2021년 2월 인천광역시 타 시·도 전입 1인 가구 수>

2021년 2월 1인 가구 전출은 직업(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사유가 3,335건으로 전체의 39.1%를 차지했으며, 2순위로 가족(분가) 사유가 1,139건으로 전체 13.4%를 차지함. 반면, 강화군의 1인 가구 전출 사유는 주거 환경(교통, 문화·편의 시설 등), 연수구는 교육(진학, 학업 등) 요인이 타 군·구와 비교하여 큰 비중을 차지함.

1인 가구 전입은 직업(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사유가 2,609건으로 전체의 34.1%를 차지했으며, 2순위로 가족(분가) 사유가 2,212건으로 전체 28.9%를 차지함. 반면, 강화군의 1인 가구 전입 사유는 자연환경(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미추홀구는 교육(진학, 학업 등) 요인이 타 군·구와 비교하여 큰 비중을 차지함. 특히, 옹진군의 경우 직업 요인으로 인한 전입이 75건으로 전체 전입 대비 70.8%를 차지하는 것이 특징임.

표 8. 2021년 2월 군·구별 1인 가구 전출 사유

| 행정구역 | 자연환경 | | 주거환경 | | 기타 | | 교육 | | 주택 | | 가족 | | 직업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인천광역시 | 105 | 1.2% | 260 | 3.1% | 547 | 6.4% | 730 | 8.6% | 1,139 | 13.4% | 2,408 | 28.3% | 3,335 | 39.1% |
| 강화군 | 2 | 1.0% | 12 | 5.8% | 9 | 4.3% | 15 | 7.2% | 33 | 15.9% | 67 | 32.4% | 69 | 33.3% |
| 옹진군 | 0 | 0.0% | 2 | 1.8% | 6 | 5.3% | 2 | 1.8% | 11 | 9.6% | 32 | 28.1% | 61 | 53.5% |
| 중구 | 6 | 1.1% | 11 | 1.9% | 44 | 7.7% | 26 | 4.6% | 71 | 12.5% | 180 | 31.7% | 230 | 40.5% |
| 동구 | 2 | 1.8% | 2 | 1.8% | 8 | 7.3% | 8 | 7.3% | 10 | 9.1% | 30 | 27.3% | 50 | 45.5% |
| 미추홀구 | 14 | 1.2% | 31 | 2.6% | 60 | 5.0% | 82 | 6.8% | 159 | 13.1% | 390 | 32.2% | 474 | 39.2% |
| 연수구 | 18 | 1.5% | 31 | 2.6% | 71 | 5.9% | 153 | 12.7% | 131 | 10.9% | 345 | 28.7% | 455 | 37.8% |
| 남동구 | 14 | 1.0% | 39 | 2.8% | 84 | 6.1% | 127 | 9.2% | 212 | 15.4% | 361 | 26.3% | 537 | 39.1% |
| 부평구 | 19 | 1.3% | 49 | 3.4% | 110 | 7.7% | 121 | 8.5% | 185 | 13.0% | 387 | 27.2% | 553 | 38.8% |
| 계양구 | 10 | 1.3% | 28 | 3.6% | 56 | 7.2% | 49 | 6.3% | 109 | 14.0% | 216 | 27.7% | 311 | 39.9% |
| 서구 | 20 | 1.3% | 55 | 3.6% | 99 | 6.5% | 147 | 9.6% | 218 | 14.2% | 400 | 26.1% | 595 | 38.8% |

표 9. 2021년 2월 군·구별 1인 가구 전입 사유

| 행정구역 | 자연환경 | | 주거환경 | | 기타 | | 교육 | | 주택 | | 가족 | | 직업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인천광역시 | 62 | 0.8% | 227 | 3.0% | 542 | 7.1% | 582 | 7.6% | 1,472 | 18.6% | 2,212 | 28.9% | 2,609 | 34.1% |
| 강화군 | 15 | 8.5% | 4 | 2.3% | 11 | 6.3% | 4 | 2.3% | 32 | 18.2% | 57 | 32.4% | 53 | 30.1% |
| 옹진군 | 4 | 3.8% | 1 | 0.9% | 4 | 3.8% | 1 | 0.9% | 2 | 1.9% | 19 | 17.9% | 75 | 70.8% |
| 중구 | 13 | 2.4% | 17 | 3.1% | 34 | 6.3% | 6 | 1.1% | 71 | 13.1% | 96 | 17.6% | 307 | 56.4% |
| 동구 | 1 | 1.3% | 3 | 3.9% | 4 | 5.2% | 2 | 2.6% | 17 | 22.1% | 29 | 37.7% | 21 | 27.3% |
| 미추홀구 | 8 | 0.6% | 32 | 2.6% | 66 | 5.3% | 317 | 25.5% | 160 | 12.9% | 264 | 21.2% | 398 | 32.0% |
| 연수구 | 3 | 0.3% | 28 | 2.5% | 76 | 6.9% | 89 | 8.0% | 181 | 16.4% | 343 | 31.0% | 387 | 35.0% |
| 남동구 | 3 | 0.2% | 33 | 2.7% | 61 | 5.0% | 49 | 4.0% | 251 | 20.6% | 376 | 30.9% | 444 | 36.5% |
| 부평구 | 8 | 0.6% | 34 | 2.8% | 88 | 7.1% | 56 | 4.5% | 293 | 23.7% | 395 | 32.0% | 361 | 29.2% |
| 계양구 | 2 | 0.3% | 26 | 3.6% | 27 | 3.8% | 35 | 4.9% | 184 | 25.6% | 250 | 34.7% | 196 | 27.2% |
| 서구 | 5 | 0.4% | 49 | 4.0% | 171 | 13.9% | 23 | 1.9% | 236 | 19.1% | 383 | 31.0% | 367 | 29.7% |

2.2.3. 지역별 1인 가구 비율 비교

인천광역시 5세 단위 1인 가구 비율은 50~69세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국과 비교하여 2019~2021년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0~64세의 비중이 3개년 동안 점차 증가함.



<그림 7. 2019년 5세 단위 연령대별 전국·수도권 1인 가구 비율>



<그림 8. 2020년 5세 단위 연령대별 전국·수도권 1인 가구 비율>



<그림 9. 2021년 5세 단위 연령대별 전국·수도권 1인 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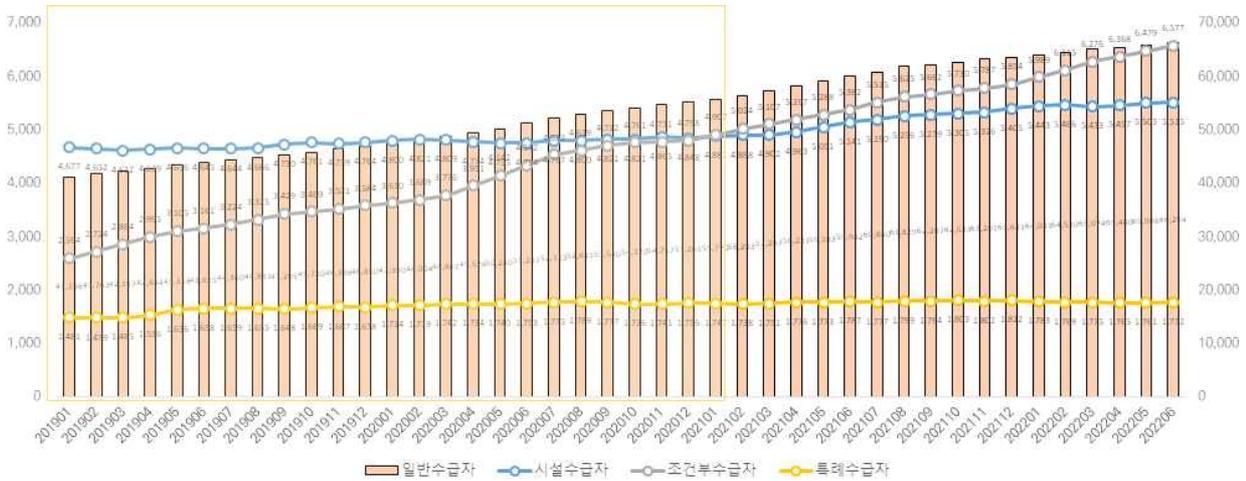
2.2.4. 1인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분석

2021년 12월 통계청 자료 기준¹⁾ 인천광역시 1인 가구 기초생활보장 현황은 전체 355,567 가구 중 76,703 가구(21.5%)로 나타났으며, 이후 지속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또한, 2021년 1월을 기점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²⁾조건부수급자(4,907가구)가 ³⁾시설수급자(4,881가구)보다 많아졌으며, 이후 조건부수급자의 증가세는 더욱 심화됨.

1) 통계청 자료는 연단위 갱신되며, 2022년 자료는 현시점에서 미공개

2) 일반적인 수급대상 이외 특례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

즉, 인천광역시 1인 가구는 보장시설을 통한 수급보다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수급이 활발히 발생하고 있음.



<그림 10. 2019년 1월 ~ 2022년 6월 인천광역시 1인 가구 기초생활보장 유형별 수급 현황>

2.3. 1인 가구 경제 및 사회 특성 분석

2.3.1. 1인 가구 사회 특성 분석

2020년 여가활동(문화 예술 및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는 다인 가구 응답자는 2,439 가구(48.4%), 1인 가구 응답자는 460(47.8%)로 다인 가구의 참여율이 근소하게 높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응답자는 4,739 가구로 나타났음. 반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다인 가구 응답자는 4,739(93.1%)가구, 1인 가구 응답자는 836(86.8%)로 다인 가구의 참여율이 더 높음. 2021년 여가활동(문화예술 및 스포츠행사)에 참여하는 다인 가구 응답자는 445가구(9.9%), 1인 가구 응답자는 145(9.5%)로 다인 가구의 참여율이 근소하게 높음. 반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다인 가구 응답자는 3,153(70.4%)가구, 1인 가구 응답자는 787(51.6%)로 다인 가구의 참여율이 더 높음.

3) 보장시설(보장기관에게 급여 지급을 위탁받은 사회 복지시설)로 지정된 시설 및 시설 수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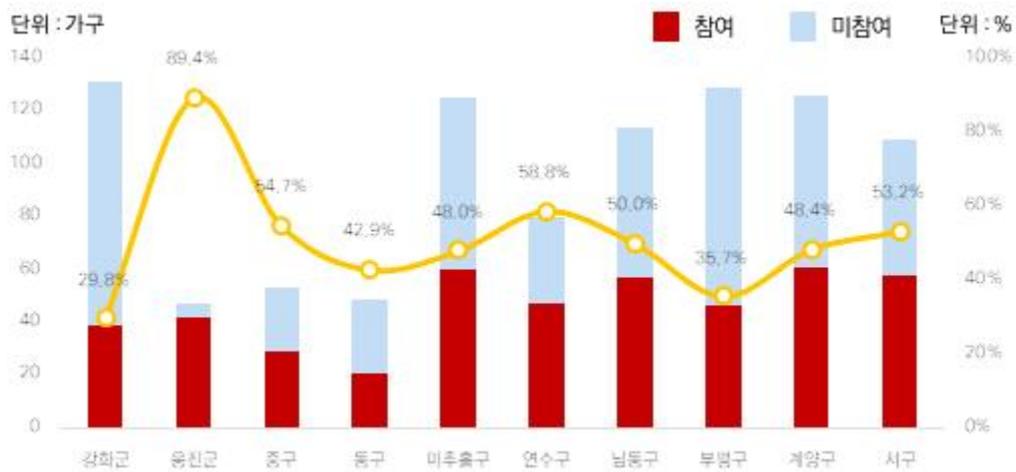


<그림 11. 2020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1인 가구 여가·경제활동여부 응답 결과>



<그림 12. 2021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1인 가구 여가·경제활동여부 응답 결과>

20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결과, 1인 가구 응답 표본이 많은 군·구는 강화군 (131 가구), 부평구(129 가구), 계양구(126 가구)이며,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응답자 비율이 인천광역시 전체 참여 비율(47.8%)보다 낮은 군·구는 강화군(29.8%), 부평구(35.7%), 동구(42.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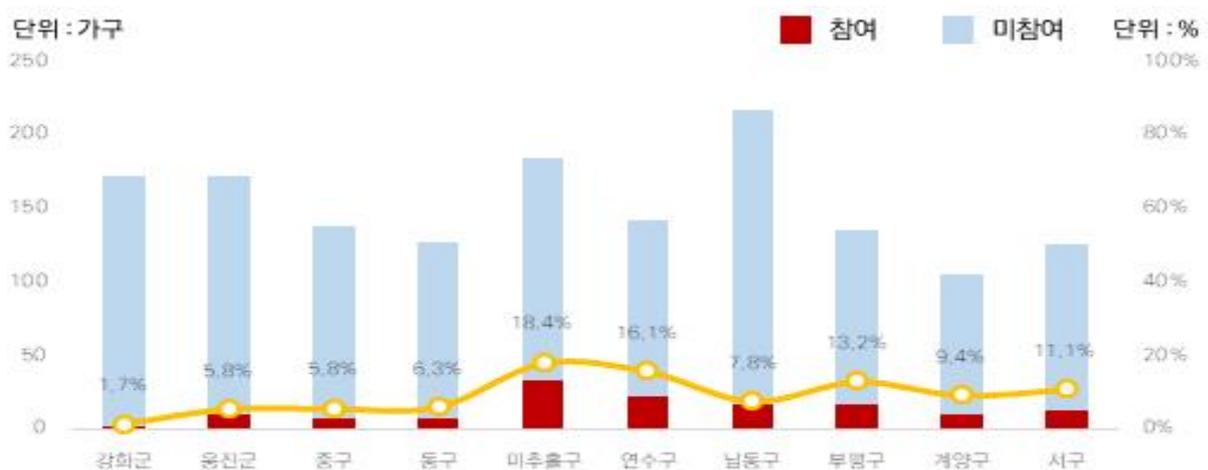


<그림 13. 2020년 인천광역시 1인 가구 여가활동여부 분포>

표 10. 2020년 인천광역시 1인 가구 여가활동여부 (단위: 가구)

| 행정구역 | 1인 가구 표본 | 참여 | 미참여 | 참여 비율 |
|-------|----------|-----|-----|-------|
| 인천광역시 | 963 | 460 | 503 | 47.8% |
| 강화군 | 131 | 39 | 92 | 29.8% |
| 옹진군 | 47 | 42 | 5 | 89.4% |
| 중구 | 53 | 29 | 24 | 54.7% |
| 동구 | 49 | 21 | 28 | 42.9% |
| 미추홀구 | 125 | 60 | 65 | 48.0% |
| 연수구 | 80 | 47 | 33 | 58.8% |
| 남동구 | 114 | 57 | 57 | 50.0% |
| 부평구 | 129 | 46 | 83 | 35.7% |
| 계양구 | 126 | 61 | 65 | 48.4% |
| 서구 | 109 | 58 | 51 | 53.2% |

2021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결과, 1인 가구 응답 표본이 많은 군·구는 남동구(217가구), 강화군(173가구), 옹진군(173가구)이며,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응답자 비율이 인천광역시 전체 참여 비율(9.5%)보다 낮은 군·구도 남동구(7.8%), 옹진군(5.8%), 강화군(1.7%)로 나타남.



<그림 14. 2021년 인천광역시 1인 가구 여가활동여부 분포>

표 11. 2021년 인천광역시 1인 가구 여가활동여부 (단위: 가구)

| 행정구역 | 1인 가구 표본 | 참여 | 미참여 | 참여 비율 |
|-------|----------|-----|-------|-------|
| 인천광역시 | 1,524 | 145 | 1,379 | 9.5% |
| 강화군 | 173 | 3 | 170 | 1.7% |
| 옹진군 | 173 | 10 | 163 | 5.8% |
| 중구 | 138 | 8 | 130 | 5.8% |
| 동구 | 127 | 8 | 119 | 6.3% |
| 미추홀구 | 185 | 34 | 151 | 18.4% |
| 연수구 | 143 | 23 | 120 | 16.1% |
| 남동구 | 217 | 17 | 200 | 7.8% |
| 부평구 | 136 | 18 | 118 | 13.2% |
| 계양구 | 106 | 10 | 96 | 9.4% |
| 서구 | 126 | 14 | 112 | 11.1% |

2.3.2. 1인 가구 경제 특성 분석

2020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결과, 1인 가구 응답 표본이 많은 군·구는 강화군(131가구), 부평구(129가구), 계양구(126가구)이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응답자 비율이 인천광역시 전체 참여 비율(86.8%)보다 낮은 군·구는 남동구(86.0%), 강화군(80.2%), 계양구(77.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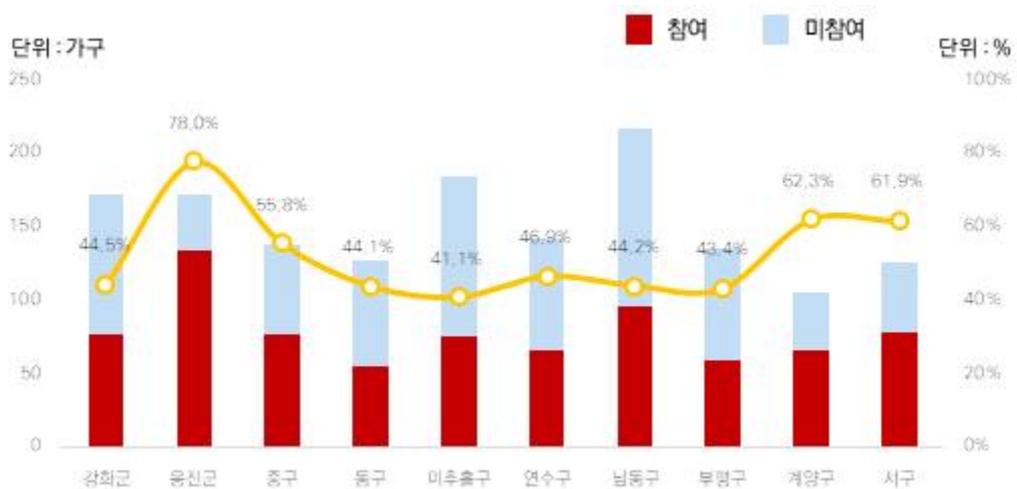


<그림 15. 2020년 인천광역시 1인 가구 경제활동여부 분포>

표 12. 2020년 인천광역시 1인 가구 경제활동여부 (단위: 가구)

| 행정구역 | 1인 가구 표본 | 참여 | 미참여 | 참여 비율 |
|-------|----------|-----|-----|-------|
| 인천광역시 | 963 | 836 | 127 | 86.8% |
| 강화군 | 131 | 105 | 26 | 80.2% |
| 옹진군 | 47 | 46 | 1 | 97.9% |
| 중구 | 53 | 46 | 7 | 86.8% |
| 동구 | 49 | 44 | 5 | 89.8% |
| 미추홀구 | 125 | 113 | 12 | 90.4% |
| 연수구 | 80 | 70 | 10 | 87.5% |
| 남동구 | 114 | 98 | 16 | 86.0% |
| 부평구 | 129 | 121 | 8 | 93.8% |
| 계양구 | 126 | 97 | 29 | 77.0% |
| 서구 | 109 | 96 | 13 | 88.1% |

2021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결과, 1인 가구 응답 표본이 많은 군·구는 강화군(131가구), 부평구(129가구), 계양구(126가구)이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응답자 비율이 인천광역시 전체 참여 비율(51.6%)보다 낮은 군·구는 강화군(44.5%), 동구(44.1%), 미추홀구(41.1%), 연수구(46.9%), 남동구(44.2%), 부평구(43.4%)로 나타남.



<그림 16. 2021년 인천광역시 1인 가구 경제활동여부 분포>

표 13. 2021년 인천광역시 1인 가구 경제활동여부 (단위: 가구)

| 행정구역 | 1인 가구 표본 | 참여 | 미참여 | 참여 비율 |
|-------|----------|-----|-----|-------|
| 인천광역시 | 1,524 | 787 | 737 | 51.6% |
| 강화군 | 173 | 77 | 96 | 44.5% |
| 옹진군 | 173 | 135 | 38 | 78.0% |
| 중구 | 138 | 77 | 61 | 55.8% |
| 동구 | 127 | 56 | 71 | 44.1% |
| 미추홀구 | 185 | 76 | 109 | 41.1% |
| 연수구 | 143 | 67 | 76 | 46.9% |
| 남동구 | 217 | 96 | 121 | 44.2% |
| 부평구 | 136 | 59 | 77 | 43.4% |
| 계양구 | 106 | 66 | 40 | 62.3% |
| 서구 | 126 | 78 | 48 | 61.9% |

3. 1인 가구 실태조사 결과

3.1. 조사 개요

3.1.1. 조사 목적

본 조사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의 취약성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태 파악을 통해 1인 가구 정책 제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둬.

최근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같은 인구 조사의 변화와 함께 만혼 및 비혼의 증가, 학업, 직장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1인 가구의 증가 추세가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인천광역시의 전체 가구 증가율 대비 1인 가구의 증가율이 높은 추세임.

※ '20년 1인 가구 현황 : (전국 31.7%) 인천 28.3%, 서울 34.9%, 경기 27.6%, 부산 32.4%

▶ 인천광역시 1인 가구 현황 - 1,147천 가구 중 325천 가구 ('21.12.8. 통계청 발표)

- 핵심 과제

① 인천광역시 특성을 반영한 1인 가구의 생활 실태 파악

(경제상태, 주거, 안전, 여가, 사회적 관계망, 건강 등)

② 인천광역시 1인 가구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 파악

③ 인천광역시의 1인 가구 정책 제안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3.1.2. 조사 설계

- 조사 대상 : '22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1인 가구

- 표본 크기 : 3,500 가구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pm 1.66\%p$)

- 조사 방법 : 온라인 패널 조사 및 개별면접조사

- 표집틀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 현황

- 표본 추출 : 지역, 생애주기에 따른 층화비례할당

① 지역 :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② 성 : 남성, 여성

③ 연령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 조사 내용 :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 (생활 및 가치관, 주거, 안전, 건강, 경제상황, 문화·여가/사회적 관계망, 1인 가구 지원정책 등)

3.1.3. 조사 내용

인천광역시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 내용을 아래 표와 같이 7가지 영역으로 구조화하여 조사함.

표 14. 1인 가구 실태조사 영역별 설문 항목

| 구분 | 설문 항목 |
|--------------|--|
| 생활 및 가치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 이유 - 1인 가구 전 동거인 - 1인 가구 삶의 만족도 및 만족이유 - 1인 가구의 장점 - 1인 가구의 애로사항 - 1인 가구에 대한 차별 인식 및 차별 행위자 |
| 주거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 중 가장 큰 불이익 -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 - 1인 가구 어려움 해결방안 및 도움제공자 - 1인 가구 예상 유지기간 및 유지를 위한 노력 - 향후 희망하는 가구 형태 |
| 주거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 만족도 - 거주지 불만사항 - 가장 필요한 주택 지원 정책 - 공유주택 인지 여부 - 공유주택 거주 의향 및 이유 - 공유주택 거주 시, 선호 동거 유형 - 공유주택 거주 시, 희망 공용공간 |
| 안전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유형 및 주거 사용 면적 - 주택 점유 형태 및 가격(임대료) - 주택 구입자금 및 임차 보증금 마련 방법 - 주택 월세 자금 마련 방법 - 주거비 부담(대출 이자, 원금 상환, 월세 등) - 거주지 선택 시, 중요 요소 - 거주지 선택 시, 어려운 점 - 주거환경으로 인한 사회관계 위축 경험 |
| 안전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 안전도 - 거주지가 불안한 이유 - 두려움에 대한 인식 - 범죄 유형별 두려움 - 범죄 예방 노력 |
| 건강상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 안전정책별 인지율 - 1인 가구 안전정책별 이용률 - 안전정책 정보 취득 경로 - 안전정책의 불안감 해소 도움도 - 안전교육 경험, 방법 및 매체 |
| 건강상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건강 상태 - 만성질환 유병률 및 진단 유형 - 흡주 여부 및 빈도 - 흡연 여부 및 1일 평균 흡연량 - 운동 여부 및 빈도 -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
| 경제상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플때 알리거나 의논하는 사람 - 최근 2년내 건강검진 여부 - 최근 1년내 예방접종 여부 - 식생활 관련 태도 - 위로 받을 수 있는 사람 - 고민상담자 |
| 경제상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원 - 근로시간 - 직업 및 지위 - 근로하지 않는 이유 - 생활비 지출액 및 저축액 - 소비지출액 비중 |
| 문화여가/사회적 관계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 현황 및 규모 - 부채 이유 - 노후 준비 여부 - 노후 준비 사항 -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 - 1인 가구 삶의 질 |
| 문화여가/사회적 관계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일 및 주말 개인시간(1일 평균) - 가장 자주 하는 활동 및 앞으로 희망하는 활동 - 원하는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 - 여가활동 동반자 - 주로 하는 사회단체 및 모임 - 꼭 필요한 사회단체 및 모임 |
| 문화여가/사회적 관계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만남 및 전화/SNS 소통 여부 및 접촉 빈도 - 반려동물 분양 의향 - 반려동물 분양 시, 가장 걱정되는 점 - 자살 고민 경험 및 이유 - 평소 태도와 감정(20개 항목) |

| 구분 | 설문 항목 |
|------------|---|
| 1인 가구 지원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 대상 15개 정책별 필요도 - 향후 1인 가구 기기 활용 서비스 제공 시, 이용 의향 - 선호하는 서비스 제공방식 - 병원동행 서비스 활용 의향 - 공유부엌 또는 요리교실 등의 프로그램 참여의향 - 서비스를 제공 받기에 가장 편한 장소 - 1인 가구 정책 및 사업 관련 제안사항 |
| 응답자 일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역 - 성 - 연령 - 혼인 상태 - 거주 형태 - 학력 - 월평균 총소득 - 인천광역시 거주기간 - 장애 여부 |

3.1.4. 응답자 특성

인천광역시 1인 가구 실태조사에 대한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음.

| 구분 | 사례수(명) | 비율(%) |
|-------|---------|--------------|
| 전체 | (3,500) | 100.0 |
| 거주 지역 | 강화군 | (109) 3.1 |
| | 옹진군 | (52) 1.5 |
| | 중구 | (251) 7.2 |
| | 동구 | (79) 2.3 |
| | 미추홀구 | (596) 17.0 |
| | 연수구 | (348) 9.9 |
| | 남동구 | (610) 17.4 |
| | 부평구 | (554) 15.8 |
| | 계양구 | (320) 9.1 |
| | 서구 | (581) 16.6 |
| 세대 | 청년층 | (1,118) 31.9 |
| | 중장년층 | (1,527) 43.6 |
| | 노년층 | (855) 24.4 |
| 성 | 남성 | (1,869) 53.4 |
| | 여성 | (1,631) 46.6 |
| 연령 | 19-20대 | (422) 12.1 |
| | 30대 | (696) 19.9 |
| | 40대 | (549) 15.7 |
| | 50대 | (643) 18.4 |
| | 60대 | (755) 21.6 |
| | 70대 이상 | (435) 1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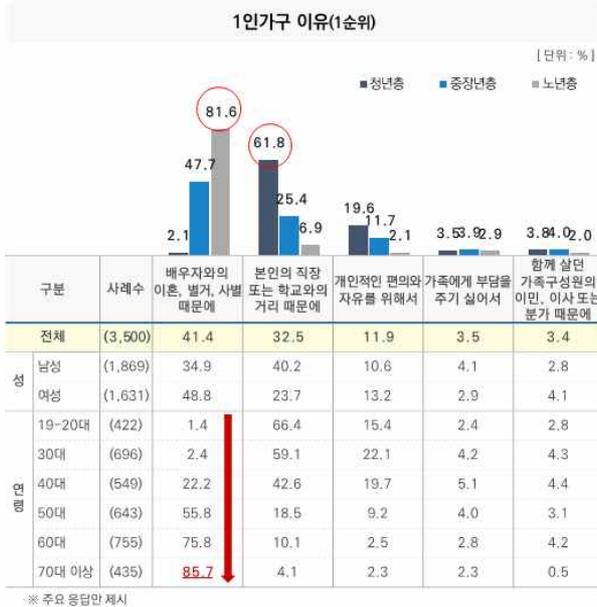
| 구분 | 사례수(명) | 비율(%) |
|---------|--------------|--------------|
| 전체 | (3,500) | 100.0 |
| 혼인 상태 | 미혼 | (1,605) 45.9 |
| | 이혼 | (861) 24.6 |
| | 사별 | (902) 25.8 |
| | 별거 | (103) 2.9 |
| | 기혼 | (29) 0.8 |
| | 학력 | 고졸 이하 |
| 대졸/대재 | | (1,611) 46.0 |
| 대학원 이상 | | (98) 2.8 |
| 월 평균 소득 | 200만원 미만 | (1,081) 30.9 |
| | 200-300만원 미만 | (1,316) 37.6 |
| | 300-500만원 미만 | (998) 28.5 |
| | 500만원 이상 | (105) 3.0 |
| 장애 여부 | 장애인 | (95) 2.7 |
| | 비장애인 | (3,405) 97.3 |

<그림 17. 인천광역시 1인 가구 실태조사 응답자 특성 현황>

3.2. 분야별 실태조사 결과

3.2.1. 생활 및 가치관

청년층의 경우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로 인해 1인 가구가 형성되고 있음. 또한 청년층의 경우 대다수가 부모와 함께 생활하다가 1인 가구가 된 경우가 많았으며, 노년층은 배우자와 생활하다가 사별로 인해 자연스럽게 1인 가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음.



1인 가구의 장점으로는 ‘자유로운 삶’이며, 특히 자유로운 삶에 대한 가치는 청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 노년층의 경우 오히려 1인 가구의 장점에 대해 좋은 점이 없다는 인식이 높았으며 1인 가구의 애로사항으로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의 어려움, 고독과 외로움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남.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위급상황 대처, 고독과 외로움 등에 대해 힘들어하는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가사활동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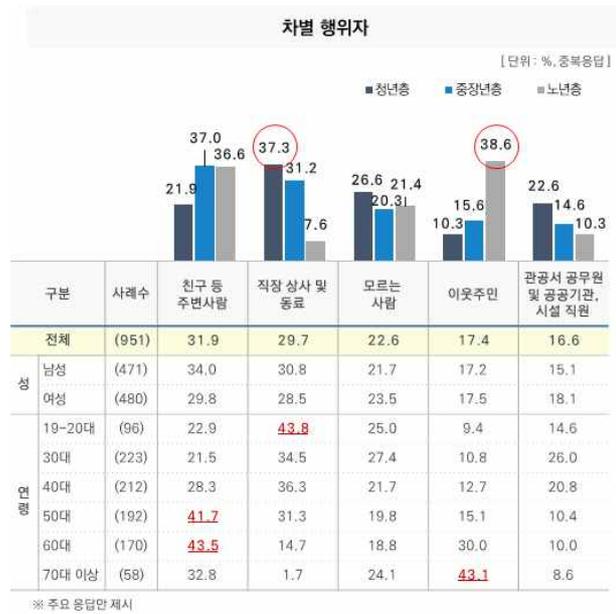


전체 응답자의 61.7%가 혼자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만족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1인 가구 삶에 대한 만족 이유로는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던 ‘자유로운 삶’ 때문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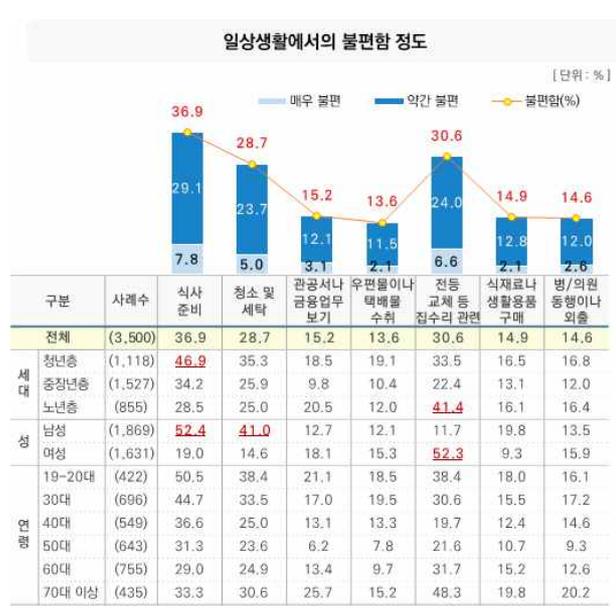
1인 가구의 27.2%는 혼자 사는 것으로 인해 편견, 차별, 무시 받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장년층에서 편견, 차별, 무시 받는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한편 편견, 차별, 무시는 ‘주변 사람’에게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년층은

‘직상 상자 및 동료’, 노년층은 ‘이웃주민’으로부터 많은 차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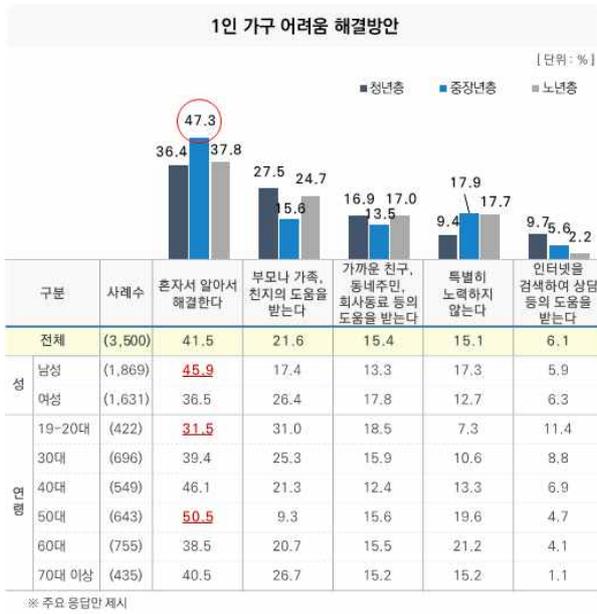


정부 지원 중 1인 가구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으로는 주택지원제도에 대한 불만이 높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주택지원제도, 세제 불이익에 대한 불만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복지혜택, 건강보험료, 일자리 사업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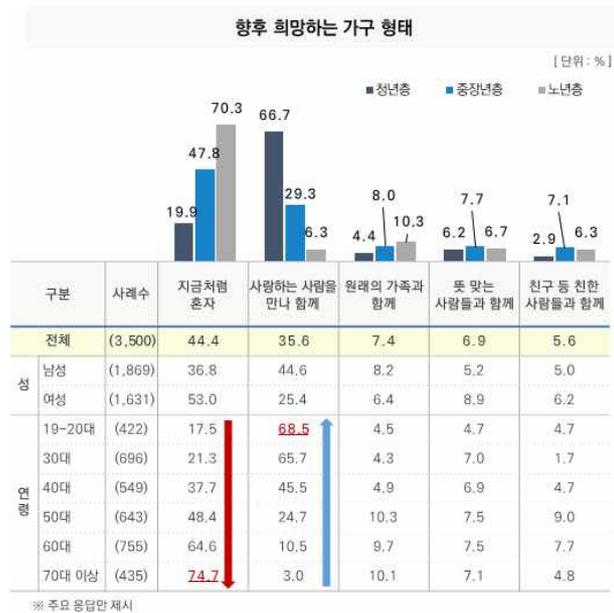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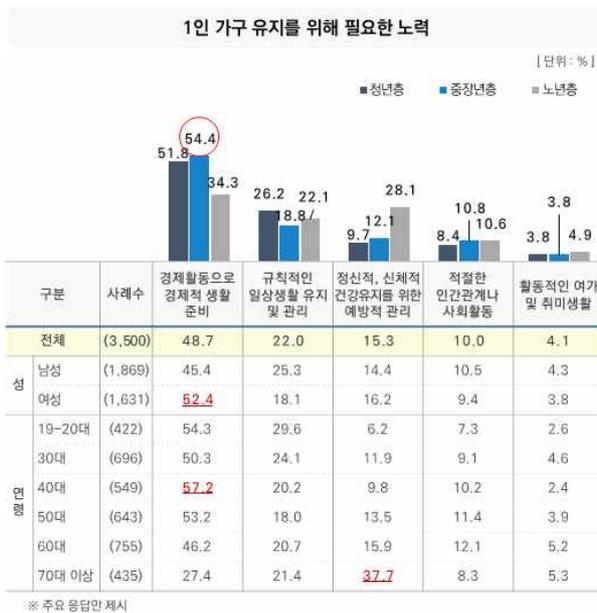
또한 1인 가구는 일상생활에서 식사 준비에 가장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청년층과 남성 1인 가구의 경우 식사 준비, 청소 및 세탁, 노년층과 여성 1인 가구는 집수리에 대한 불편함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인 가구로 생활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를 원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어려움 발생 시 또한 혼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음. 한편 여성 1인 가구와 청년층의 경우 가족이나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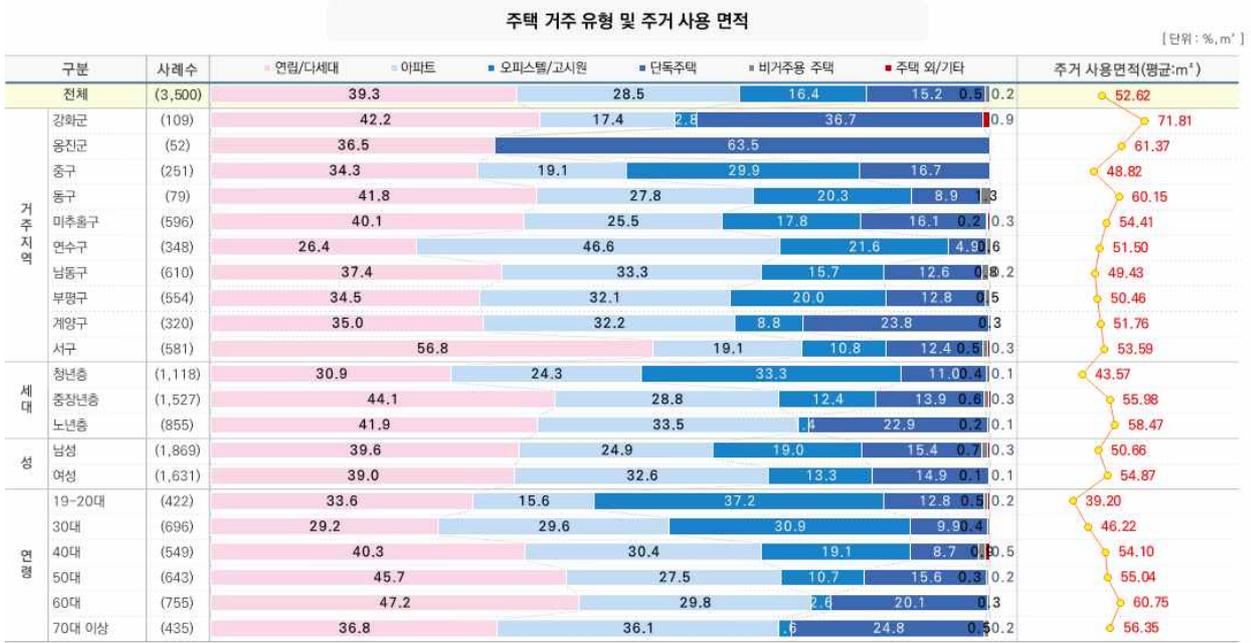


1인 가구 유지를 위해서는 ‘경제적 생활 준비’를 위한 노력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1인 가구의 44.4%가 지금처럼 혼자 살기를 희망하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는 응답은 35.6%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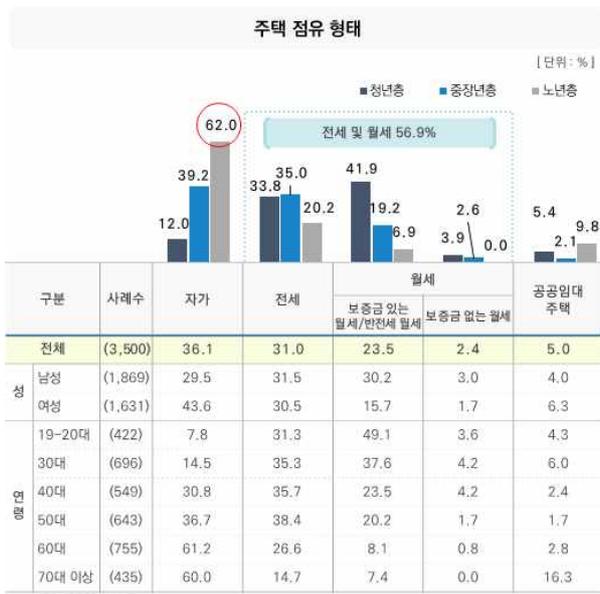


3.2.2. 주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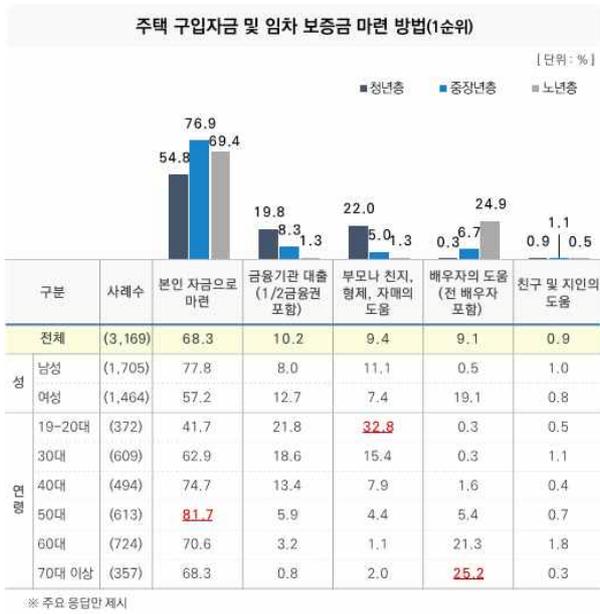
전반적으로 1인 가구는 연립/다세대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평균 주거 사용 면적은 약 15평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용진군은 단독주택, 서구는 연립/다세대, 연수구는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청년 1인 가구는 오피스텔/고시원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1인 가구의 과반수 이상은 전세와 월세 등 임차로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청년층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주택 구입 자금 및 임차 보증금, 월세 모두 본인 자금을 통해 마련하는 비중이 높았고 중장년층에서 본인 자금으로 주택 구입 및 임차 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높았으며 청년층은 본인 자금 외에 부모나 친지, 형제, 자매를 통해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거주지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거주경험’, ‘교통 편리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어려운 점은 부동산 계약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과 거주 비용으로 나타났음.



1인 가구의 55.2%가 현 거주지에 만족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만족률이 낮게 나타났음.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지 점유 형태, 주거 내부 시설 등으로 인한 사회 관례 위축 경험은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으며 1인 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주택 지원 정책으로는 장기공공임대 주택 공급, 전세 자금 대출 지원,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 순으로 나타났음.



1인 가구의 70.2%가 공유 주택에 대해 알고 있으며 1.6%에 해당하는 1인 가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공유 주택 인지자 중 32.8%가 원하는 조건에 맞을 경우 거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공유 주택에 거주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 때문이며 특히 청년층에서 경제성에 대한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반면 공유 주택 거주를 꺼려하는 이유로는 공동체 활동으로 인한 갈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3.2.3. 안전환경

1인 가구의 65.4%가 현 거주지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불안 요인으로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 안전시설 미비, 노년층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또한 1인 가구 10명 중 2명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대다수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편으로 조사되었음.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과반수 이상(63.4%)이 느끼고 있으며 특히 ‘묻지마 폭행’에 대한 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으로는 야간 문단속, 위험장소 회피 등 소극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음.



1인 가구 안전정책별 인지율은 성범죄자 알림e(59.7%), 여성안심지킴이집(53.6%), SOS 국민안심서비스(50.1%) 순으로 높았으며, 안전정책 관련 정보는 주로 포털사이트와 방송 매체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인천광역시의 1인 가구 안전정책에 대한 전체 이용률은 20.0%로 높지 않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음.

1인 가구 안전정책별 전체 이용률(안전정책 중 1개라도 인지한 경우)



“1인 가구 안전 정책이 일상생활에서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된다”(28.3%) 라는 인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28.6%) 라는 인식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적 인식이 강하게 나타난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음. 또한 안전 교육 경험률은 12.4%이며, 비대면 교육보다는 대면 교육을 통한 경험이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음.

안전정책의 불안감 해소 도움 정도



※ 보통 응답 제시하지 않음

안전교육 경험 및 방법



※ 주요 응답만 제시

3.2.4. 건강상태

1인 가구의 과반수 이상(54.9%)은 스스로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신체적 건강 상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크게 나타나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1인 가구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46.4%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70대 이상은 고혈압, 골관절염, 골다공증, 당뇨병을 가장 많이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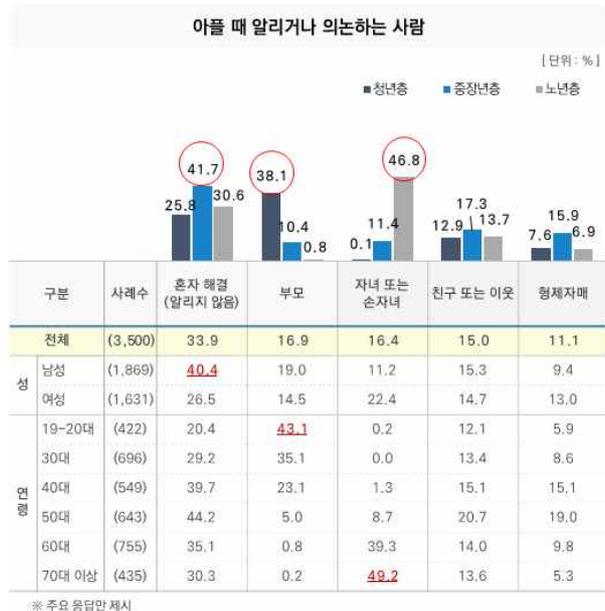
1인 가구의 흡주율은 66.0%로 나타났으며 흡주 빈도는 주 1~2회(31.5%), 월 1~2회(23.1%), 주 3~4회(8.9%) 순으로 조사되었음.



1인 가구의 75.7%가 운동을 하고 있으며 운동 빈도는 주 1-2회(28.3%), 주 3-4회(21.1%), 거의 매일(15.3%) 순으로 나타났음.



본인이 아플 때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해결하는 경우가 33.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모(16.9%), 자녀 또는 손자녀(16.4%), 친구 또는 이웃(15.0%) 순으로 의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최근 2년 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률은 71.8%, 최근 1년 이내 예방접종을 받은 경험률은 85.3% 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1인 가구의 77.7%는 우울하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의지가 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 고민 상담자로는 '친구 및 이웃'이 4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형제자매(12.1%), 자녀(10.3%) 순으로 나타났음.



3.2.5. 경제상황

1인 가구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는 79.6%로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사무 종사자(28.7%), 서비스 종사자(21.4%), 판매 종사자(14.3%)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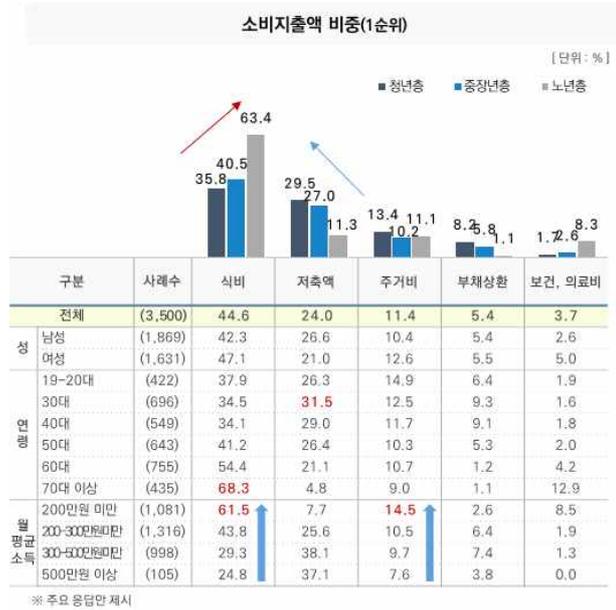
근로 형태별로는 상용근로자(61.5%)가 과반수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임시근로자, 자영업/사업주 순으로 나타났음. 또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1.7 시간으로 소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다소 웃도는 수준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1인 가구의 주 소득원은 근로 소득(79.6%)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정부 지원(14.7%), 가족 지원(12.1%)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청년층에서 학업이나 자격증 취득 혹은 취업 교육이 가장 높은 반면, 노년층에서는 나이가 가장 큰 이유로 조사되었음.



최근 3개월 간 가장 많은 지출 항목 1순위로는 식비, 저축액, 주거비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1인 가구의 30.4%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음



또한 1인 가구의 54.6%가 노후 대비 준비를 하고 있으나, 45.4%는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되었으며 노후 대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사항으로는 국민연금(51.0%), 예금, 적금(25.0%), 개인연금(10.0%)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한편,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대다수가 현재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벅차서 못 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노후 대비를 위한 준비 현황



노후 대비 준비사항(1순위)



※ 주요 응답만 제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



※ 주요 응답만 제시

3.2.6. 문화·여가 / 사회적 관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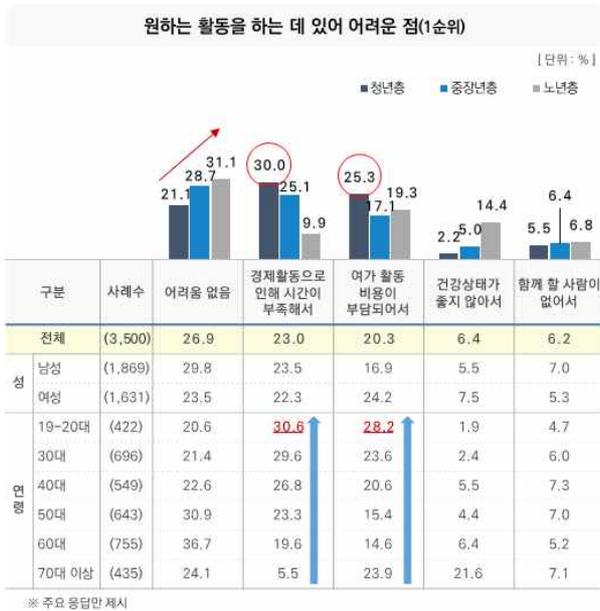
1인 가구의 평일 개인 시간은 평균 4.7시간이며, 주말 개인 시간은 8.1시간으로 약 2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 1인 가구에서 남성과 비교하였을 때 평일과 주말 모두 개인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현재 주로 하는 활동은 영상물 시청, 가사일, 휴식 순으로 높았으며 향후 가장 희망하는 활동은 여행/나들이, 취미활동 및 자기 계발, 스포츠 활동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1인 가구의 26.9%는 원하는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어려움을 느끼는 점으로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과 여가활동 비용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여가활동을 주로 함께하는 사람은 친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혼자, 연인, 배우자 순으로 나타났음.



또한 직접 만남과 전화 또는 SNS 모두 친구와의 소통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1인 가구의 67.9%는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8.1%만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또한 반려동물 분양 시, 가장 걱정되는 점은 믿고 맡길만한 곳이 없다, 치료비용 부담, 적합하지 않은 주거 공간 순으로 나타났음.

| 구분 | 사례수 | 키울 생각이 전혀 없음 | 키우려고 고려 중 | 현재 키우고 있음 | |
|----|---------|--------------|-----------|-----------|------|
| 전체 | (3,500) | 67.9 | 18.1 | 14.0 | |
| 세대 | 청년층 | (1,118) | 60.2 | 24.8 | 15.0 |
| | 중장년층 | (1,527) | 69.4 | 17.7 | 13.0 |
| | 노년층 | (855) | 75.3 | 10.3 | 14.4 |
| 성 | 남성 | (1,869) | 71.8 | 20.1 | 8.1 |
| | 여성 | (1,631) | 63.4 | 15.9 | 20.7 |
| 연령 | 19~20대 | (422) | 57.3 | 24.6 | 18.0 |
| | 30대 | (696) | 61.9 | 24.9 | 13.2 |
| | 40대 | (549) | 65.0 | 21.5 | 13.5 |
| | 50대 | (643) | 70.9 | 16.5 | 12.6 |
| | 60대 | (755) | 73.9 | 13.0 | 13.1 |
| | 70대 이상 | (435) | 76.3 | 8.3 | 15.4 |



자살을 고민해 본 경험은 8.4%로 나타났으며 91.6%는 고민해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자살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외로움/고독, 정신과적 문제, 급격한 금전적 손실 순으로 나타났음.

| 구분 | 사례수 | 있음 | 없음 | |
|----|---------|---------|------|------|
| 전체 | (3,500) | 8.4 | 91.6 | |
| 세대 | 청년층 | (1,118) | 13.0 | 87.0 |
| | 중장년층 | (1,527) | 7.7 | 92.3 |
| | 노년층 | (855) | 3.5 | 96.5 |
| 성 | 남성 | (1,869) | 6.6 | 93.4 |
| | 여성 | (1,631) | 10.4 | 89.6 |
| 연령 | 19~20대 | (422) | 14.9 | 85.1 |
| | 30대 | (696) | 11.8 | 88.2 |
| | 40대 | (549) | 12.0 | 88.0 |
| | 50대 | (643) | 6.4 | 93.6 |
| | 60대 | (755) | 2.8 | 97.2 |
| | 70대 이상 | (435) | 4.6 | 95.4 |



3.2.7. 1인 가구 지원 정책

1인 가구 세부 정책별 필요성은 주택 안정(83.1%), 주거 환경 개선(71.4%), 건강 증진(71.3%)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원봉사/지역사회 참여(49.7%)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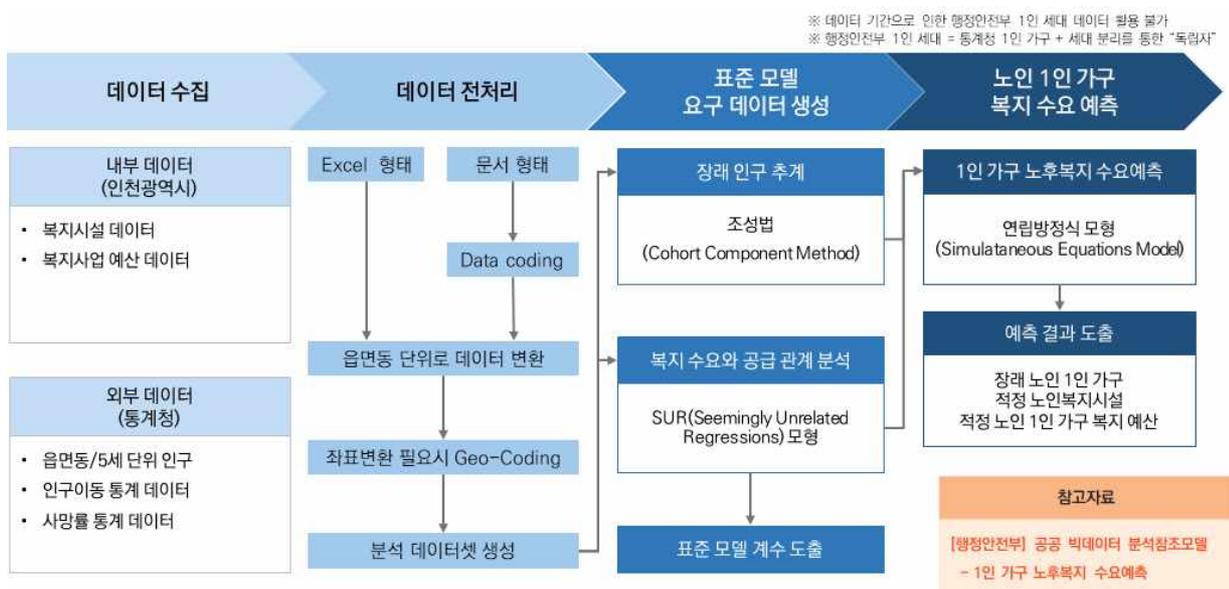
향후 1인 가구 대상 지원 서비스 중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한 의향(63.8%)이 과반수 이상으로 가장 높고 정서적 지원 서비스는 45.5%, 요리 관련 프로그램은 44.1%가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4. 1인 가구 예측모델 개발 결과

4.1. 분석 프로세스

1인 가구 예측모델 개발은 통계청의 읍면동/5세 단위 인구, 인구이동 통계 데이터, 사망률 통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행정안전부 표준분석방법론을 기반으로 진행되었음. 또한, 인천광역시에서 제공한 노인복지시설 정보, 노인복지사업 예산 데이터를 이용하여 1인 가구 노후복지 수요 예측 모델을 개발함.



<그림 19. 1인 가구 예측모델 개발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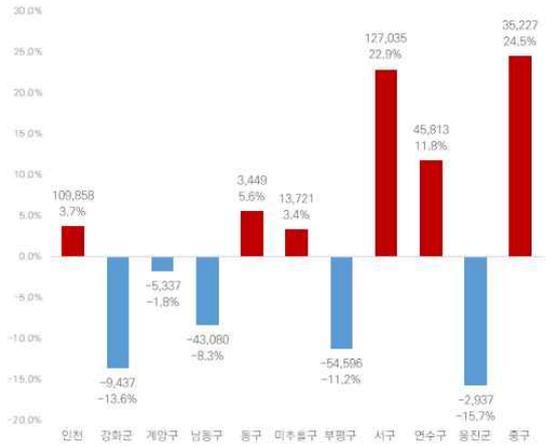
4.2. 인천광역시 장래 인구 추계 결과

4.2.1. 장래 인구 추계 결과

인천광역시 장래 인구는 2041년 3,113,666명까지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1인 가구는 205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함. 2021년 대비 2051년 군·구별 장래 인구 증가율은 중구 24.5%(35,227명), 서구 22.9%(127,035명), 연수구 11.8%(45,813명)으로 크게 나타나지만, 감소율은 용진군 15.7%(2,937명), 강화군 13.6%(9,437명), 부평구 11.2%(54,596명) 순으로 크게 나타남.



<그림 20. 2021년 ~ 2051년 인천 장래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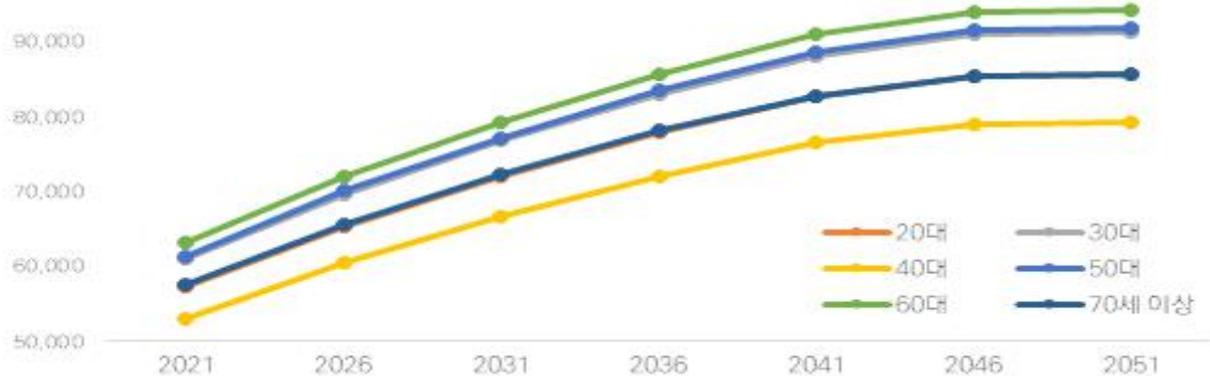
<그림 21. 2021년 대비 2051년 군·구별 장래 인구 증감률>

표 15. 2021년~2051년 인천광역시 장래 인구 추계 결과

| 인천광역시 | 2021년 | 2026년 | 2031년 | 2036년 | 2041년 | 2046년 | 2051년 | 21년 대비 51년 증감량 |
|-------|-----------|-----------|-----------|-----------|-----------|-----------|-----------|----------------|
| 장래 인구 | 2,946,533 | 3,011,145 | 3,064,633 | 3,100,664 | 3,113,666 | 3,098,717 | 3,056,391 | ▲109,858 |

4.2.2. 장래 1인 가구 추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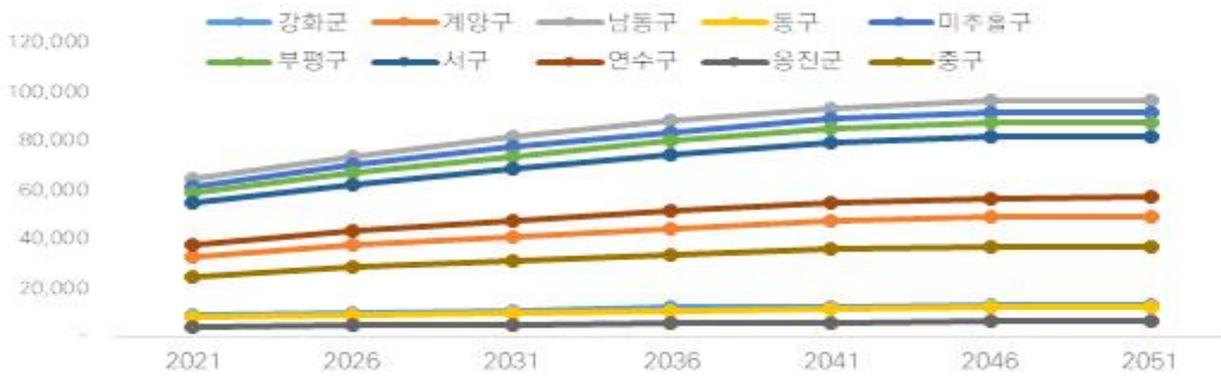
인천광역시 2051년 연령대별 장래 1인 가구 추계 결과, 60대가 94,406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50대(91,894가구), 30대(91,397가구), 20대(85,754가구) 순으로 높음. 또한, 2051년 군·구별 장래 1인 가구 추계 결과, 남동구(96,522가구), 미추홀구(91,714가구), 부평구(87,644가구), 서구(81,600가구), 연수구(56,704가구)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2. 인천광역시 연령대별 장래 1인 가구 추계>

표 16. 2021년~2051년 인천광역시 10세 단위 장래 인구 추계 결과 (단위: 가구)

| 연령대 | 2021 | 2026 | 2031 | 2036 | 2041 | 2046 | 2051 |
|---------|--------|--------|--------|--------|--------|--------|--------|
| 10 대 | 2,032 | 2,321 | 2,556 | 2,766 | 2,938 | 3,016 | 3,020 |
| 20 대 | 57,356 | 65,502 | 72,151 | 77,965 | 82,782 | 85,430 | 85,754 |
| 30 대 | 61,114 | 69,798 | 76,879 | 83,084 | 88,220 | 91,048 | 91,397 |
| 40 대 | 53,069 | 60,606 | 66,762 | 72,147 | 76,610 | 79,074 | 79,379 |
| 50 대 | 61,446 | 70,178 | 77,303 | 83,536 | 88,701 | 91,551 | 91,894 |
| 60 대 | 63,130 | 72,087 | 79,403 | 85,813 | 91,120 | 94,044 | 94,406 |
| 70 세 이상 | 57,508 | 65,683 | 72,343 | 78,144 | 82,924 | 85,558 | 85,838 |



<그림 23. 인천광역시 군·구별 장래 1인 가구 추계>

표 17. 2021년~2051년 인천광역시 군·구별 장래 인구 추계 결과 (단위: 가구)

| 군·구 | 2021 | 2026 | 2031 | 2036 | 2041 | 2046 | 2051 |
|------|--------|--------|--------|--------|--------|--------|--------|
| 강화군 | 8,764 | 10,009 | 11,027 | 11,916 | 12,647 | 13,045 | 13,072 |
| 계양구 | 32,698 | 37,342 | 41,131 | 44,453 | 47,192 | 48,704 | 48,890 |
| 남동구 | 64,561 | 73,726 | 81,209 | 87,756 | 93,170 | 96,154 | 96,522 |
| 동구 | 8,130 | 9,290 | 10,228 | 11,053 | 11,739 | 12,112 | 12,137 |
| 미추홀구 | 61,330 | 70,050 | 77,158 | 83,375 | 88,525 | 91,362 | 91,714 |
| 부평구 | 58,618 | 66,950 | 73,743 | 79,676 | 84,588 | 87,302 | 87,644 |
| 서구 | 54,577 | 62,327 | 68,651 | 74,193 | 78,783 | 81,297 | 81,600 |
| 연수구 | 37,925 | 43,306 | 47,706 | 51,547 | 54,724 | 56,482 | 56,704 |
| 용진군 | 4,250 | 4,851 | 5,345 | 5,775 | 6,132 | 6,327 | 6,340 |
| 중구 | 24,802 | 28,324 | 31,199 | 33,711 | 35,795 | 36,936 | 37,065 |

4.2.3. 장래 노인 1인 가구 추계 결과

2051년 인천광역시 노인 1인 가구 수는 2021년 대비 49.35%(41,879가구) 증가한 126,733가구로 예측되었음. 또한, 동일 기간 내 인천광역시 전체 1인 가구 증가율과 비교하여 큰 군·구는 계양구(49.5%), 부평구(49.5%), 남동구(49.4%)로 나타났으며, 증가율이 작은 군·구는 용진군(48.7%), 동구(49.2%), 연수구(49.2%)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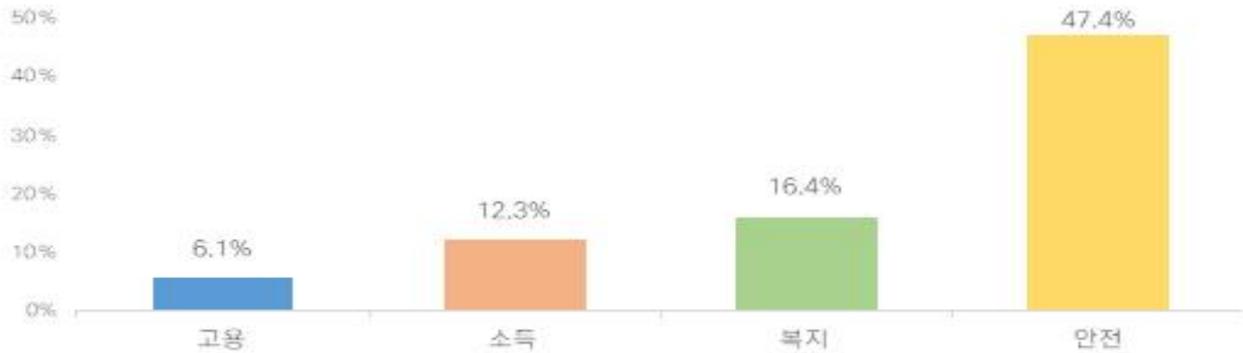
<그림 24. 2021~2051년 인천광역시 장래 인구 및 노인 1인 가구 추계>

표 18. 2021년~2051년 인천광역시 군·구별 장래 인구 추계 결과 (단위: 가구)

| 군·구 | 2021 | 2026 | 2031 | 2036 | 2041 | 2046 | 2051 |
|-------|--------|--------|---------|---------|---------|---------|---------|
| 인천광역시 | 84,854 | 96,908 | 106,739 | 115,316 | 122,398 | 126,295 | 126,733 |
| 강화군 | 4,371 | 4,992 | 5,500 | 5,946 | 6,313 | 6,510 | 6,521 |
| 계양구 | 8,130 | 9,286 | 10,231 | 11,058 | 11,734 | 12,109 | 12,154 |
| 남동구 | 15,668 | 17,891 | 19,711 | 21,298 | 22,603 | 23,325 | 23,413 |
| 동구 | 3,303 | 3,775 | 4,153 | 4,486 | 4,765 | 4,914 | 4,927 |
| 미추홀구 | 14,248 | 16,280 | 17,931 | 19,367 | 20,557 | 21,208 | 21,286 |
| 부평구 | 15,720 | 17,959 | 19,776 | 21,363 | 22,675 | 23,406 | 23,498 |
| 서구 | 10,623 | 12,126 | 13,357 | 14,432 | 15,322 | 15,810 | 15,862 |
| 연수구 | 6,913 | 7,890 | 8,693 | 9,385 | 9,957 | 10,276 | 10,312 |
| 용진군 | 1,301 | 1,484 | 1,633 | 1,764 | 1,872 | 1,931 | 1,934 |
| 중구 | 4,575 | 5,225 | 5,754 | 6,217 | 6,600 | 6,806 | 6,826 |

4.3. 분야별 노후 복지 수요 예산 예측 결과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에서 발표한 ‘맞춤형 노인복지 정책’의 세부사업을 기반으로 고용, 소득, 복지, 안전 분류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함. 노인복지 예산은 2020년 대비 2021년 12.4% 증가했으며, 예산 분류별 증가율은 안전(47.4%), 복지(16.4%), 소득(12.3%), 고용(6.1%)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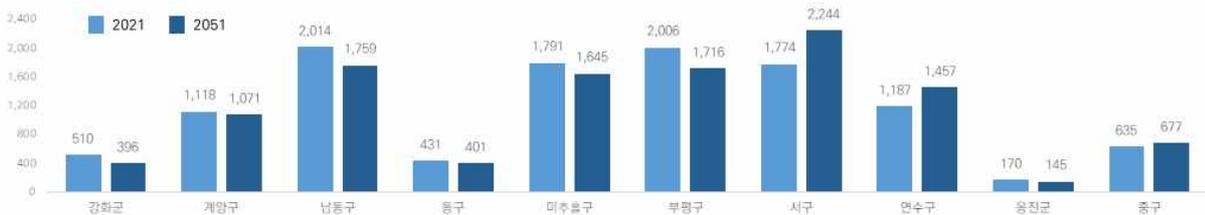
<그림 25. 예산 분류별 증감률>

표 19. 2020년~2021년 인천광역시 예산 분류별 증감규모 및 증감률 (단위: 원)

| 예산 분류 | 2020년 | 2021년 | 증감규모 | 증감률 |
|-------|---------------|---------------|-------------|-------|
| 합계 | 1,066,924,058 | 1,198,978,271 | 132,054,213 | 12.4% |
| 고용 | 113,328,209 | 120,231,655 | 6,903,446 | 6.1% |
| 소득 | 774,050,933 | 869,605,985 | 95,555,052 | 12.3% |
| 복지 | 178,854,040 | 208,122,170 | 29,268,130 | 16.4% |
| 안전 | 690,876 | 1,018,461 | 327,585 | 47.4% |

4.3.1. 고용

인천광역시 노인 고용 예산은 2021년 1,164억원에서 2051년 1,151억원으로 13억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 대비 2051년 고용 예산 증가율이 높은 군·구는 서구, 연수구, 중구로 나타났고 감소율이 높은 군·구는 강화군, 옹진군, 부평구로 나타남.



<그림 26. 2021년, 2051년 군·구별 고용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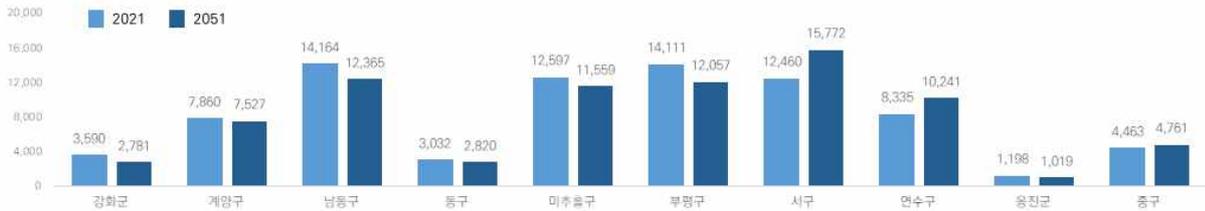
<그림 27. 2021년 대비 2051년 군·구별 고용 예산 증감률>



<그림 28. 고용 예산 증가에 따른 군·구 노인 1인 가구 추계>

4.3.2.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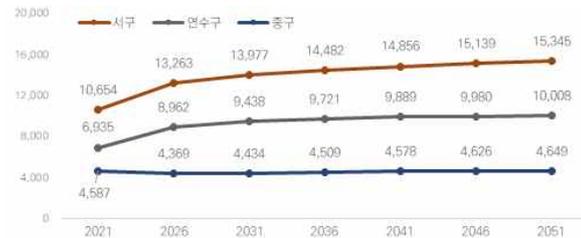
인천광역시 노인 소득 예산은 2021년 8,181억원에서 2051년 8,090억원으로 91억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 대비 2051년 고용 예산 증가율이 높은 군구는 서구, 연수구, 중구로 나타났고 감소율이 높은 군구는 강화군, 옹진군, 부평구로 나타남.



<그림 29. 2021년, 2051년 군·구별 소득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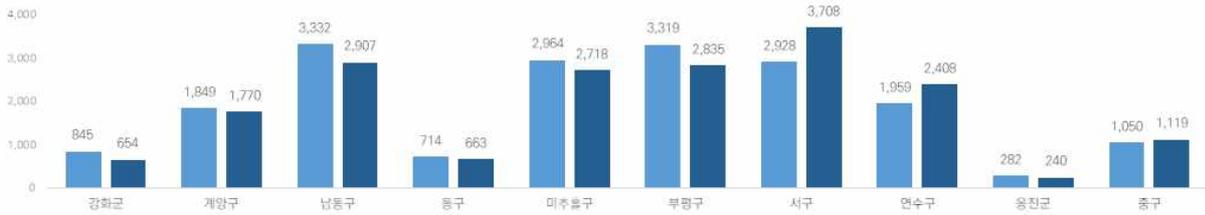
<그림 30. 2021년 대비 2051년 군·구별 소득 예산 증감률>



<그림 31. 소득 예산 증가에 따른 군·구 노인 1인 가구 추계>

4.3.3.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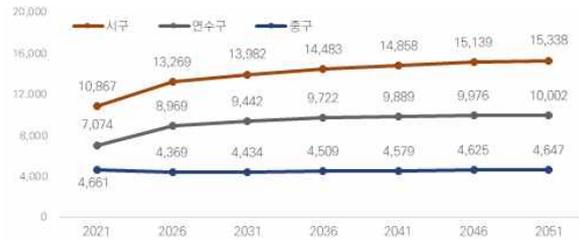
인천광역시 노인 복지 예산은 2021년 1,924억원에서 2051년 1,902억원으로 22억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 대비 2051년 고용 예산 증가율이 높은 군구는 서구, 연수구, 중구로 나타났고 감소율이 높은 군구는 강화군, 옹진군, 부평구로 나타남.



<그림 32. 2021년, 2051년 군·구별 복지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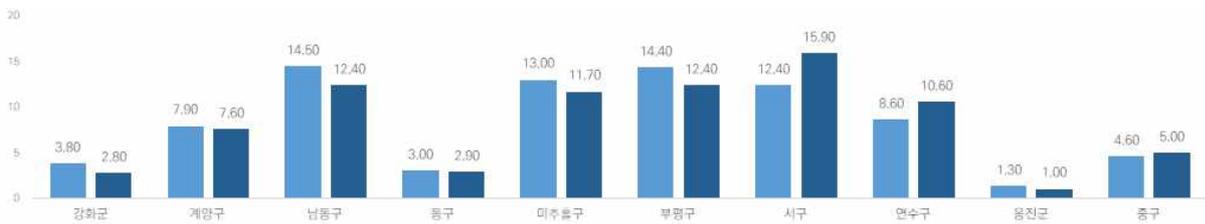
<그림 33. 2021년 대비 2051년 군·구별 복지 예산 증감률>



<그림 34. 복지 예산 증가에 따른 군·구 노인 1인 가구 추계>

4.3.4.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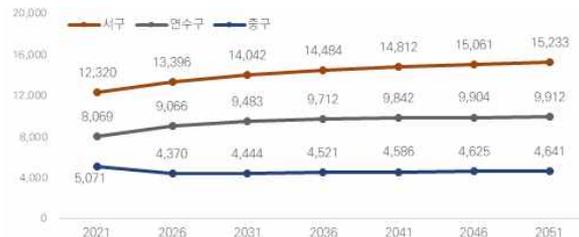
인천광역시 노인 소득 예산은 2021년 8억 3,500만원에서 2051년 8억 2,300만원으로 1,2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 대비 2051년 고용 예산 증가율이 높은 군·구는 서구, 연수구, 중구로 나타났고 감소율이 높은 군·구는 강화군, 용진군, 남동구로 나타남.



<그림 35. 2021년, 2051년 군·구별 안전 예산>



<그림 36. 2021년 대비 2051년 군·구별 안전 예산 증감률>



<그림 37. 안전 예산 증가에 따른 군·구 노인 1인 가구 추계>

5. 결론 및 정책 활용 방안

5.1. 정책 활용 방안

5.1.1. 과업 내 분석 결과 요약

1) 1인 가구 시각지대 분석

범죄주의구간 인근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및 관공서가 존재하고 범죄 발생은 인근 밝기에 따른 영향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노인복지시설 접근 취약지역에 요양 지원이 필요함.

2) 1인 가구 예측 모델 개발

인천광역시 1인 가구는 2051년까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장년 및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3) 노후복지수요 예산 예측

인천광역시 장래 인구는 2041년 이후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노인 1인 가구는 증가하여 고령화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5.1.2. 타 지방자치단체 1인 가구 정책 사례

- (부산시) 여성친화형 1인 가구 안전복합타운
 - ✓ 정책내용 :
 - '스마트 셉테드 (CPTED)인프라' 구축 추진
 - 원룸 밀집 지역에 CCTV, 센서등, 스마트 초인종, 무인택배함 등 최신 방범 시설을 구축



부산시 여성친화형 1인 가구 안전복합타운사업 개요도

- (서울시) 서울시 1인 가구 안심 종합계획
 - ✓ 정책내용 :
 - 건강 위험 및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중장년 및 노년층 1인 가구
 - 1. 방문간호사를 통한 **건강상태 평가 및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 제공**
 - 2. 정밀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복지 시설 연계
 - 3.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소셜 다이닝 운영을 위한 '공동부엌' 조성**



서울시 1인가구 4대 안심정책 추진 계획

1인가구 4대 안심정책 추진계획

혼자어도 OK! 함께니까 OK!

1인가구 안심특별시, 서울

비전: 1인가구 분야별 불안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목표: 1인가구가 사회구성원으로서 공존하며 살아가는 정책 기반 마련

4대 안심정책:

- 건강안심
건강 회복
안심복지포
- 범죄안심
마음안심
내로 안전
- 고령안심
고독·고립해소
사랑의정착
- 주거안심
방충주택공급
주택물량확보

<그림 38. 타 지방자치단체 1인 가구 정책 사례>

5.1.3. 본 사업 정책 활용 방안

1) 1인 가구 밀집 지역 방범시설 구축

범죄에 취약한 여성·노년층 1인 가구 밀집 지역 내 현관출입통제시스템, 방범창, CCTV, 센서등, 스마트 초인종, 무인택배함 등 방범시설 도입을 통한 범죄 예방이 필요함. 특히, 여성안심 무인택배함은 범죄 발생률을 유의미하게 낮춘다는 연구자료가 존재.

2) 중장년 및 노년층 1인 가구를 위한 대비책 마련

중장년 및 노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상태 평가 및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며, 사회적 고립 극복을 목적으로 하는 소셜 다이닝 환경 구축을 통하여 외로움/고독, 만성질환, 건강상태 이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그림 39. 본 사업 정책 활용 방안>

3) “생활 및 가치관” 분야 정책 활용 방안

인천광역시 남성 1인 가구는 식사 준비, 청소 및 세탁과 관련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가장 크게 느낌. 따라서, 1인 가구에 필요한 일상생활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4) “주거생활” 분야 정책 활용 방안

인천광역시 1인 가구 과반수 이상이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특히 청년층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노년층의 자살 고민 이유 중 외로움/고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 도모, 노년층의 외로움/고독 완화를 위한 맞춤형 공유주택 정책 마련 필요

5) “경제상황” 분야 정책 활용 방안

인천광역시 1인 가구의 45.4%가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으며, 이유는 현재 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따라서, 생애주기별 1인 가구 재무설계 강화 및 자기돌봄 능력향상을 위한 재무·경제 교육 지원 필요

6) “문화·여가/사회적 관계망” 분야 정책 활용 방안

인천광역시 1인 가구 중 자살 고민 이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답변은 “외로움/고독”으로 특히, 연령층이 높을수록 증가함. 따라서,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관심 분야별 동아리 활동 지원 필요

| “생활 및 가치관” 분야 정책 활용 방안 | “주거생활” 분야 정책 활용 방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 결과 : 남성 1인 가구는 일상생활에서 식사 준비와 청소 및 세탁에 관련한 불편함을 가장 크게 느낌 ✓ 활용 방안 : 1인 가구에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 노하우 온라인 강좌 개설 ✓ 활용 방법(경기도 혼(자) 라이프 꿀팁 교육 참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천 평생학습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강좌 개설 2. 강좌 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 살 집 구하기 • 혼자 살이 필수템! 청소용품부터 주방용품까지 • 정리의 시작, 비워내기과 옷장 정리하기 • 서랍장과 신발장 정리하기 • 셀프 수리하기 • 1인 가구 식재료 사수하기 • 1인 가구, 슬기로운 안전 팁 • 내 몸은 내가 지킨다! 호신술을 알아보자 • 나 혼자 사는 집, 공과금 절약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 결과 : 1. 1인 가구 과반수 이상이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에서 주거비 부담이 높은 편임 2. 노년층의 자살 고민 이유 중 외로움/고독이 가장 높음 ✓ 활용 방안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노년층의 외로움/고독 완화를 위한 청년층/노년층 맞춤형 공유주택 공급 ✓ 활용 방법(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참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보다 저렴하게 공급(시세 80%) 2. 최장 10년 거주 가능 3.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공간 조성과 커뮤니티 특화 프로그램 운영 |
|  |  |

<그림 40. 생활 및 가치관, 주거생활 분야 정책 활용 방안>

“경제상황” 분야 정책 활용 방안

- ✓ 분석 결과 : 1인 가구의 45.4%가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현재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벅차서임
- ✓ 활용 방안 : 1인 가구의 재무설계 강화 및 자기돌봄 능력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무·경제 교육 지원
- ✓ 활용 방법(경기도 재무·경제교육 및 개인 재무상담 지원 참조)

1. 프로그램당 20명 내외
2. 군구실정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 생애주기 | 과정 |
|------|---|
| 청년기 | (1회) 중직도 마련법 (2회) 임금 살펴보기 (3회) 보험정리 및 저축계획 (4회) 추천 정부제도 활용 - 소득자산형성 지원제도 등 |
| 중장년기 | (1회) 노후자금 마련법 (2회) 금융투자 성향 확인 (3회) 노후자금 확인 및 계획 (4회) 추천 정부제도 활용 - 주택 마련 지원제도 등 |
| 노년기 | (1회) 안정적인 생활비 마련법 (2회) 부채 및 정기소득 점검 (3회) 연금인출 전략 세우기 (4회) 추천 정부제도 활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



“문화·여가/사회적 관계망” 분야 정책 활용 방안

- ✓ 분석 결과 : 자살 고민 이유 중 외로움/고독이 43.7%를 차지하며, 연령층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 ✓ 활용 방안 :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관심 분야별 동아리 활동 지원
- ✓ 활용 방법(경기도 중장년 수다살롱 참조)

1. 지원 기준 : 구성인원 5명 내외, 월 2회 이상 활동
2. 지원 금액 : 분기별 30~50만원
3. 지원 분야 : 취미, 자기개발, 문화 등 주제별 및 연령대별 활동 희망분야



<그림 41. 경제상황, 문화·여가/사회적 관계망 분야 정책 활용 방안>